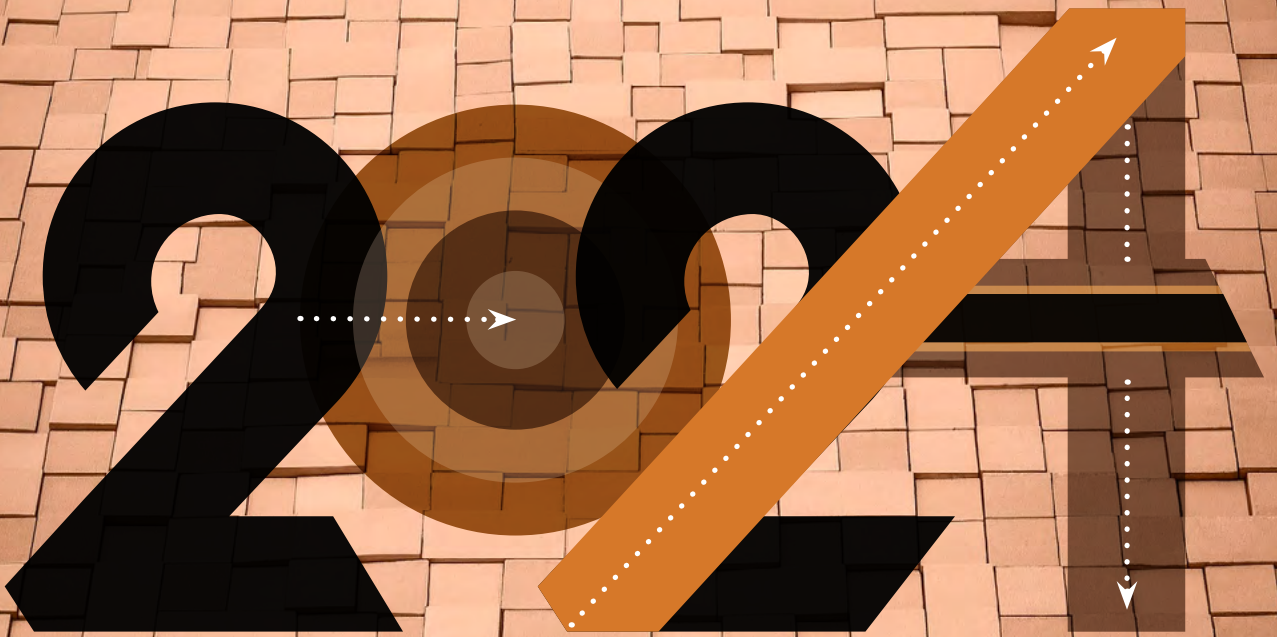


융합경영리뷰

한 국 을 대 표 하 는 융 합 경 영 매 거 진



2024년을 전망하며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생활 속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업경영에도 역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융합경영 리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학과 이의 관련된 제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경영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contents

에디터 컬럼

1 2024년을 전망하며

주제 컬럼

2 2024년의 키워드 _ 박병태

6 빅데이터로 2024년을 엿보다 _ 박정완

10 '7학년짜리'의 버킷리스트 _ 황재일

15 만들어 가는 미래: 박진영과 골든걸스 _ 김승범

사이버경영

20 온라인 미디어 정보의 법과 규제 유형 _ 메타 사피언스

휴먼경영

35 기업의 DEI를 이끄는 리더: CDO(Chief Diversity Officer)

_ 이종구

39 넷플릭스의 조직문화를 배우자 _ 김강희

43 자폐성장애인과 함께하는 삶 _ 강은희

47 노인의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매슬로 욕구단계이론 관점

_ 이영기

경영에세이

56 세계일주기행: 스페인 여행기2 _ 이규형

융합경영 리뷰_2024년 1월호(No.55)

발행일 2024년 1월 1일

발행처 지식플랫폼

발행인 김주연

편집위원장 엄재근

편집 그린펠스

디자인 M.S.G.

주소 서울시 금천구 뚝섬로 286, 507호

이메일 bookplatform@naver.com

팩스 02-6499-4370

광고 문의 '융합경영 리뷰'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

bookplatform@naver.com / 010-6839-4970





2024년을 전망하며

2024년이 왔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 용의 해', 육십 간의지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의미한다고 한다. 승천하는 용처럼 소망하는 것들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다.

2024년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2%로 정상화되며, 팬데믹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압박에서 벗어나고,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이 안정되며,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중소기업계가 2024년 사자성어로 '운외창천(雲外蒼天)'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운외창천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계에 이러한 미래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의 2024년 거시경제 전망은 '예고된 경기침체, 엘(L)자형 저성장 본격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성장세 둔화로 시장 수요와 매출이 위축되고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으며, 각종 비용과 부담이 지속되어서 경제 주체들의 이중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 키워드로 '용문점액(龍門點額)'을 꼽았다. 물살이 강한 중국 황하의 '용문'에서 물고기가 이 문을 넘으면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가지만 이를 넘지 못하면 하루로 떠내려간다는 의미다. 내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거나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미래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떠한 미래로 들어설지는 알 수 없으나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고, 위험을 피해야 한다. 행운과 불행을 만드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2024년 한국 경제가 청룡처럼 승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

2024년의 키워드

박병태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반복적으로 새해에 대한 전망과 트렌드 분석들이 등장한다. 제대로 변화를 꿰뚫는 경우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예측을 대중에게 주입하여 미미했던 변화를 대세 트렌드로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변화의 방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그만큼 미래는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화 현상 속에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 공통적인 변화를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에 따라 미래에 대한 대응이나 새로운 비

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할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2024년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해볼 핵심 단어는 '속도'다.

1990년대 초에 등장한 개인용 컴퓨터를 2024년 기준으로 역산하면 30여 년, 2006년 스티브 잡스가 손에 들고 나타난 아이폰은 18년, 2022년 말에 등장한 생성형 AI는 1.5년으로 역산해볼 수 있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정보 단위를 '0' 또는 '1'로 표현하는 비트(bit)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이와 같은 컴퓨터 중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양자컴퓨터에 관련된 개발 소식이 여기저기 들린다. 지금도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겹치기) 상태'까지도 가능한 큐비트(qubit: quantum bit)를 기본으로 한 양자 컴퓨터의 세상은 얼마나 더 빨라질 것인가?

둘째, '판도라의 상자'이다.

앞서 제시한 빠른 변화 속도에 따라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현상이나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생명의 신비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꿈꾸는 도전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다. 호모사피엔스들은 평균수명 60세를 기준으로 라이프 스타일



을 맞춰왔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선진국조차 60세 평균수명은 꿈의 숫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광고나 문구가 여기저기 등장한다. 수명 연장에 따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셋째, ‘개념 확장’이다.

과거에는 세부적이고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대였다. 하나하나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존중받는 시대였다. 소위 점(點)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중반부터 스티브 잡스에 의하여 이러한 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선(線)의 시대로 바뀌었다. 선의 시대에 점들은 혼자 독립하기 위태로운 시대이다. 개념 정립이 확실하고 세부적이면서 전문적인 분야들은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면 알고리즘이 생기게 된다. 이는 다시 AI 개발로 이어지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나타난다. 선(線)을 통해 수집된 대단위 정보들(big data)은 그 속에서 하나의 연결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연결을 통해 플랫폼이라는 ‘지식 덩어리’를 만들며 선을 넘어 면(面)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면(面)으로 변해가는 분야들은, 알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의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 예를 들어 의료산업은 ‘질병치료(Treatment)’라는 개념으로 고착되어왔는데, 면의 시대가 되면서 ‘헬스케어(Healthcare)’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헬스케어(Healthcare)’는 다시 ‘건강(Health)’을 넘어 ‘행복(Happy) 추구’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변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신사업 영역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질병치료(Treatment)’라는 한정된 사업 영역이 아니라 ‘행복(Happy) 추구’라는 아주 넓은 개념의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로 꿰뚫어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통찰한 것만 살아남는다!”**

★★★★★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로 꿰뚫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공자의 일이관지(一以貫之)처럼 저자가 터득한 다양한 경험과 직관을 토대로 6가지의 통찰 습관을 제시한다.

- 박형주(이주대 수학과 석좌교수, 이주대 16대 총장)

★★★★★

이 책은 복잡한 세상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나에게도 정신이 번쩍 드는 매력적인 책이다.

- 윤은기(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

4차산업혁명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통찰에 이르는 방법론을 터득하고 혁신의 무기를 장착하게 될 것이다.

- 구정완(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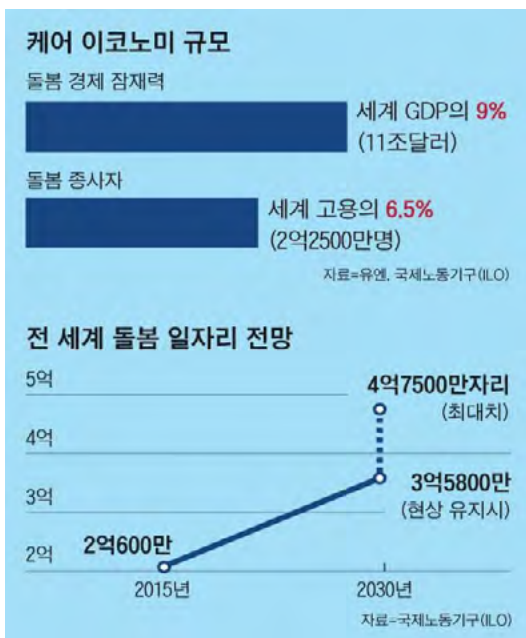
차별화된 고객경험 관리의 기업 운영의 기본이 되었다.

박병태 박사는 통찰을 통해 고객 경험의 새로운 실천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 장익환(LG전자 부사장)

넷째, '고령화'이다.

세계가 늙어가고 있다.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국가이다. UN보고에 따르면 세계 65세 인구 비율은 1990년 6.2%에서 2030년 11.7%, 2100년에는 22.6%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세계가 늙어감에 따라 '돌봄'과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 늘어나게 된다. 돌봄에 필요한 인수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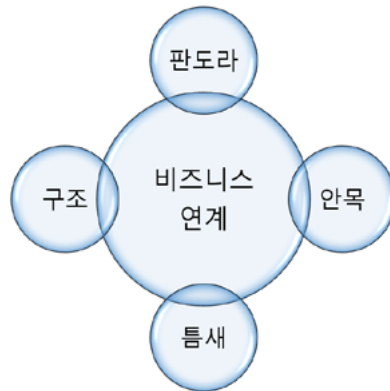
케어 이코노미 규모(출처: 『조선일보』, 2023. 11. 19일자 재인용)

돌봄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다. 그동안 돌봄이라면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상인의 일상생활까지도 돌봄의 영역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어린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직장에 출근하면 어린이집으로 가거나 시터가 돌보는 것이 이미 일상으로 굳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이지만 은퇴한 노인들의 취미나 여가는 물론, 늘어나는 핵 개인들의 정

서적인 문제나 관심도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분야는 어디든지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병원 사업에서도 수명 연장으로 인한 급성기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간 재활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돌봄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런 영역들은 무료 복지영역에서 유료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속도', '판도라의 상자', '개념 확장', '고령화'라는 공동적인 변화 양상을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변화와 비즈니스의 연계

먼저, '판도라의 상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새로운 사업 영역이 나타나면 기존의 비즈니스 분야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새로운 반향으로 전환하던지 아주 처절한 혁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좌초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새로 열리는 사업 영역은 블루오션이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돌봄'이나 '행복 추구' 등이 새로운 사업 영역이 될 것이다.

둘째, '안목'이 필요하다. 판도라의 상자는 계속 열리고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가 전부 독점할 수는 없고, 기존의 직업이나 일자리로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변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도라의 상자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민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틈새'를 찾아야 한다. 거대하고 오래 걸리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틈새를 찾아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애자일 전략이 앞으로 계속 유용할 것이다.

넷째, '비즈니스 구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인구 구조는 물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거나 예측되는 사업 영역은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유아나 청소년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 분야는 고급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중저가 대량 생산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고급 상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쉽게 예측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까? 불투명하다는 것은 그래서 위기이지만 기회이다.



박병태 교수/경영학 박사
 (현)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현) 가톨릭보건의료경영연구소 소장/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보건정책실 국장
 (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장
 (전) 은평성모병원 개원준비 사무국장
 (전) 서울성모병원 개원준비 사무국장
 저서 「통찰의 도구들」, 「인사이트 좀 있는 사람」
 「문화가 성과다」(공동 번역)

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어떻게 더 의미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기획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지은이 **김재선, 정원준, 백수진, 이해영, 신호은**

“의료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 그리고 의료의 혁신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독자들은 디지털전환이 이루어낼 의료의 미래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태환(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교문)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류는 비대면과 대면이 혼재하는 위기이자 새로운 혁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신뢰 자본이자 새로운 산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양질의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확보해 안전하게 활용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률(SCL 헬스케어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석학 단체로서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하여 신뢰할 만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적 제안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규창(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빅데이터로 2024년을 엿보다

박정완



2024년 불확실성의 영향이 지속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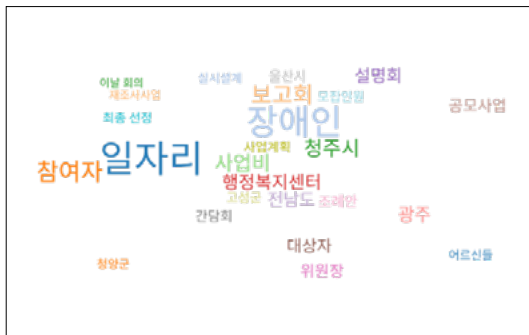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2024년을 기대하며 『트렌드 코리아』와 같은 유명 서적들이 하나 둘씩 내년의 사회, 경제, 정치, 기술과 관련된 예측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특히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작가는 ‘핵개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분초사회’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그만큼 철저하게 개인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분, 초 단위로까지 나눠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기술의 발전과 사

회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연시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의 경제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 그 말은 곧 기업들의 사정이 밝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고용과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우리는 더욱 내년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기업들은 직책자들의 수를 대폭 줄이기 시작했으며, 조직구조 또한 슬림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빠르게 변해가는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동시에 어

려워지는 기업 환경에 맞춰 고용 수준을 줄여나감으로써, 직원들에게 고용불안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 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데이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보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일종의 추세선을 통해 확률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100% 맞는 보장은 없지만 그 예측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 더욱 우리는 확률에 기반한 정보의 나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2024년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사이트에서 '2024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도출된 뉴스 결과들을 시각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키워드로 알아본 2024년: Bad But Better

검색 결과로 도출된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장애인, 보고회, 사업비, 사업계획, 설명회, 참여자 등으로 주요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공공 일자리 사업, 각 지역별 2024년도 사업계획 및 보고회에 대한 내용들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서는 단순히 2024년이라는 단어만을 검색창에 Key In하였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할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역별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좀 더 명확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전망'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한번 시각화를 진행해보았다.



그 결과 주요 키워드로는 연구원, 부동산, 고금리, 성장률, 기업들, 영업이익, 반도체, 상향조정, AI, 수익성, 중국 등 산업이나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로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되는 뉴스 기사들 중에서 최우선으로 언급되는 기사 Top 10을 뽑아보면 '동국 제약'이라는 회사의 목표주가 상향, 가전(휴대폰, TV, PC) 혼자전환, OLED 수혜주에 따른 추가 조정, 포럼 개최, 증권사의 삼성전기 수혜 예상, 셀트리온 합병에 따른 사업 다각화로 인한 추가 상향의 내용을 들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는 내용은 제약, 가전 산업 부문의 약진이 내년도에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국 제약, "배수 터라임" 목표주가 2.3배→2.6배 상향 동국제약 뉴스 배수 터라임... 중국 제약, 배수 터라임 목표주가 2.3배→2.6배 상향 배수 터라임... 중국 제약, 배수 터라임 목표주가 2.3배→2.6배 상향 배수 터라임... 중국 제약, 배수 터라임 목표주가 2.3배→2.6배 상향	"2024년 휴대폰 TV+PC 반도체 3년내에 성장 전망" [목표 366] 삼성증권 뉴스 "2024년 휴대폰 TV+PC 반도체 3년내에 성장 전망" [목표 366] 삼성증권 뉴스 "2024년 휴대폰 TV+PC 반도체 3년내에 성장 전망" [목표 366] 삼성증권 뉴스	회엔에이치테크, OLED 시세 급등... 목표가 3.4억원 '발목' 삼성증권 뉴스 회엔에이치테크, OLED 시세 급등... 목표가 3.4억원 '발목' 삼성증권 뉴스 회엔에이치테크, OLED 시세 급등... 목표가 3.4억원 '발목' 삼성증권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제72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경남대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제72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경남대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제72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경남대 뉴스	대신들 "2024년 상반기 최선호주는 삼성전기, 뉴헤럴드닷컴 수혜" 대신들 뉴스 대신들 "2024년 상반기 최선호주는 삼성전기, 뉴헤럴드닷컴 수혜" 대신들 뉴스 대신들 "2024년 상반기 최선호주는 삼성전기, 뉴헤럴드닷컴 수혜" 대신들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올 상반기 실적 평가와 내년 전망 논의 경남대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올 상반기 실적 평가와 내년 전망 논의 경남대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올 상반기 실적 평가와 내년 전망 논의 경남대 뉴스	중기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심포지엄 개최 중기연구원 뉴스 중기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심포지엄 개최 중기연구원 뉴스 중기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심포지엄 개최 중기연구원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제72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경남대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제72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경남대 뉴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제72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경남대 뉴스	수도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심포지엄 개최 수도연구원 뉴스 수도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심포지엄 개최 수도연구원 뉴스 수도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심포지엄 개최 수도연구원 뉴스	대신들 "셀트리온, 합병으로 사업 다각화 기대... 목표가 20만원" 대신들 뉴스 대신들 "셀트리온, 합병으로 사업 다각화 기대... 목표가 20만원" 대신들 뉴스 대신들 "셀트리온, 합병으로 사업 다각화 기대... 목표가 20만원" 대신들 뉴스
--------------------------------------------------------------------------------------------------------------------------------------------------------------------------------------------	-----------------------------------------------------------------------------------------------------------------------------------------------------------------------------	-----------------------------------------------------------------------------------------------------------------------------------------------------------------	--------------------------------------------------------------------------------------------------------------------------------	--------------------------------------------------------------------------------------------------------------------------------------------------------------	-----------------------------------------------------------------------------------------------------------------------------------------------------	--------------------------------------------------------------------------------------------------------------------------------------------------------------	--------------------------------------------------------------------------------------------------------------------------------	-----------------------------------------------------------------------------------------------------------------------------------------------------------	-----------------------------------------------------------------------------------------------------------------------------------------------------------------

다음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부동산 전망, 투자설명회 개최, 스테그플레이션 전망 소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동결, 특정 지역의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내용이 주로 뉴스기사로 검색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요 경제전망을 하는 증권, 경영경제연구소의 전문가관들도 부동산의 향방에 특히나 주목하며 내년도 리스크와 전망에 대한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울산경제포럼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찬회에서는 2024년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침체인 스테그플레이션 전망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로 비머네스크를 발휘해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경우, 1인 가구 증가 등의 추세로 강보합에 가까운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성장률의 지속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전망과 함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전문 기관 1곳에 대한 내용을 옮겨하기에 속단할 수는 없으나 연구원, 부동산, 영업이익, 중국 등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잘 기술한 뉴스로 볼 수 있다. 이에 기업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며, 대비 차원에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필수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로 AI와 빅데이터가 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AI'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기사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그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산업의 최대 화두 AI, 기술유출 방지책 마련 필요성, AI기업의 성장, 생성형 AI 이용에 대한 응답과, 가트너의 글로벌 IT지출 성장전망, 관련 법과 정책의 개정, 메모리 반도체 장기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는데, 이를 통해 내년 전망을 살펴보면 곧 AI와 관련된 S/W나 H/W 기업들이 큰 수요에 힘입어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p>간략히... 2024년 7월 11일 AI&D 부동산</p> <p>건설업, 내달 1월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건설업,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내년 건설경기 벅찼다... 주택부동산시장도 침체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10시 시장 해설자료 - 핵심자료] 2024년 중시가 없어진 5가지 리스크 시장은 달릴 수 있을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하나증권 연구장광승연리, 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부동산 매달리스트부터 입찰유선서까지...신간 '2024 부동산 전망'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하나증권 연구장광승연리, 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2024년 스테그플레이션 전망...비머네스크" 발원해야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동결한다...근본 차원 해결로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2024년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간략히... 2024년 7월 11일 AI&D</p> <p>네이버, 2024년 디지털 미디어 영향 보고서 발행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2024년 디지털산업 최대 화두는 'AI'로 눈 뜨기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올더, 'AI를 넘어 AI인도' 산업 동향 컨퍼런스 개최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AI 스스로 모험 만들고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세상 온다...기술을 발전적 혁신해야"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기술유출 "일어어도, 시범품 산업 확대 수혜...내년부터 수요 모델링 성장"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핵심 인재론 고수한다...특례항목 79%" 생성형 AI 이용할 것"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가트너 "2024년 글로벌 IT 지출 8% 성장 전망...생성형 AI 영향 커"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대덕연구단지 조성...생성형 AI 영향 커"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외국인은 연내에도 수형...핵무기 연내에 조기 수형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2024년 글로벌 IT 지출 8% 성장 전망...생성형 AI 영향 커"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p>경제연구소, [11월 14일] [11월 14일] [11월 14일]</p>
------------------------------------------------------------------------------------------------------------------------------------------------------------------------------------------------------------------------------------------------------------------------------------------------------------------------------------------------------------------------------------------------------------------------------------------------------------------------------------------------------------------------------------------------------------------------------------------------------------------------------------------------------------------------------------------------------------------------------------------------------------------------------------------------------------------------------------------------------------------------------------------------------------------------------------------------------------------------------------------------------------------------------------------------------------------------------------------------------------------------------------------------------------------------------------------------------------------------------------------------------------------------------------------------------------------------------------------------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IT산업의 성장을 견인함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기술 용어들이 정렬되며, 이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술의 접목과 이를 통한 성장의 중심에 'AI'를 두고 일어서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에 가속력을 얻게 되었고 OpenAI로부터 촉발된 일반인들의 일상속 생성형 AI활용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이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사춘기를 겪으며 아주 사소한 감정에도 쉽게 상처받고, 쓰러져 몇 날 며칠을 기분 상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전의 감정들에 익숙해지거나 무뎌지며 다음에 올 큰 아픔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미국,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급진적 사회/기술적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난관 등을 경험하며 다방면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창조적으로 난관을 뛰어넘는 성향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힘들지만 빠르고 유

연하게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AI'라는 기술은 분명 앞에서 언급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기술 도입과 활용으로 개인, 기업, 산업, 나라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란다.



박정완

현) DAMA Korea 이사

전) 이니텍(KT그룹) 금융전략팀

넥서스앤코드 전략컨설팅, STX조선해양 사업기획팀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 박사 / Helsinki University MBA

저서: 『우리는 즐거운 퇴사 인간입니다』, 『Premium 브랜드 마케팅』

『컨설턴트가 바라본 경험과 미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일상적 접근』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거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
-찰스 다윈-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 빠르게
변해가는 지금의 사회 속에서 오늘의 경
영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CEO와 리
더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를 품고 자라온
세대들이 하나, 둘 회사에서 머리 수를 채
워 나갈수록 기업의 문화와 산업의 생태
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굴러가게 될 것
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조직이 생존
하는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7학년짜리’의 버킷리스트

황재일



어느덧 또 한 해가 득달같이 과거 속으로 달아나고 2024년 새해를 단 며칠만 남겨둔 세밑에 한 해를 전망하는 주제로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또 며칠 노화로 인해 삐걱거리는 나의 두뇌를 안쓰러워하며 어떻게든 ‘한 쓸거리’를 찾아내려 끙끙거리며 보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니 내년, 그러니까 2024년은 나로서 정말 정식으로 ‘7학년짜리’로 진급하는 해임을 깨달았다. 올해 2023년부터 우리나라도 공식적 나이를 서양처럼 만(滿)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으니 그 기준에 맞추면 새해가 되어야 나도 70대에 접어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의하면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보내다가 7학년째가 되면 중학교에 진학하는

큰 전환점이기도 하다. 그러니 내 인생 학교에 적용해 본다면 나오서도 큰 도약이 일어나야 할 전환점인 것이다. 갈수록 노화되어 가는 몸 형편에 위축되고 주눅 들기보다는 더욱 성숙해지는 내면의 세계를 즐기는 해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것이다. 성서에서 위대한 선각자였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 사람은 날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 갑니다.”¹

1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4:16

자,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칼럼에서는 7학년짜리로
진급하는 첫해를 기념하면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좀
정성 들여서 구상해볼까 한다. (70대란 말은 웬지 스
스로를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은 어감이 있어서 대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

절대 긍정의 달인 완성하기

지난달 칼럼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터졌던 바로 그 무렵에 나 역시 내 인생 최대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는 수렁
에서 빠져나오려고 수년 동안 안간힘을 썼지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늪 속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상황
이 악화되지만 했다.

그러다 마침내 2018년 전반기에 결혼 생활 약 40년
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십수억의 자산을 빚잔치로 다
허공에 날려버리고 빈손이 되어 엘살바도르란 지구상
제일 위험하다고 소문난 나라로 극적인 탈출을 시도
했었고, 그 시절 이야기는 본지 칼럼에서도 간간히 공
개해온 바 있다.

3년을 우리나라 정부가 파견하는 자문관 신분으로
그곳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종잣돈을 모아서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
을 안고 아내랑 함께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혼신의 열
정을 불태웠다.

아, 하지만 아직도 운명의 혹독한 훈련은 끝나지 않
았다. 2년이 채 안 된 2020년 3월,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그곳에 있는 집도 대부분 그대로
둔 채 미국에서 마련한 특별기를 타고 열결에 한국으
로 되돌아와야 했다. 나로서는 2~3개월 후엔 다시 돌아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것
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그해 5월의 긴 연휴
동안 남미 여행 한번 해보겠다고 예약하고 선지불했
던 비행기 티켓값 수백만 원도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떼임을 당한 채...

귀국한 직후 내 인생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
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도 절도 한 칸 없었고, 60
대 후반의 나이에 취직자리를 찾기도 막막했다. 엘살
바도르로 떠나기 직전까지 17년 동안 살았던 65평 아
파트는 이미 남의 소유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아무래도 정든 그 동네로 가서 8평짜리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 다시 한국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엘살바도르에 있는 동안
나에겐 유튜브란 매체를 통해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
의 계기가 만들어졌고, 명상과 관련 서적들²을 통해
‘절대 긍정’의 마음을 훈련하는 습관이 제법 형성이 되
어서 귀국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녕 우리 부
부가 원래 목표로 했던 종잣돈 1억 만들기보다 훨씬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득템’이었음을 그 당시에는 제대
로 자각하지 못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절대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의 명상과 일기 쓰기를 통해 실
천해 나갔고, 그 결과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동시성 현상들은 가히 기적들이라 말
하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구체적 사례들은 이미
나의 지년간 칼럼들 속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으니
혹여 궁금하신 독자들은 나의 지년간 칼럼들을 네이
버 블로그에서 찾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³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새해의
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진술해보자.

아직 내가 스스로 ‘절대 긍정의 달인’이라고 인정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 때때로 무심코 혼잣
말로 내뱉는 부정적 표현들이 우선 떠오른다. 예컨대
“어휴, 이제 정말 늙어가는 모양이야. 건강 상태도 그
렇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어.” 혹은 “인간

2 대표적 서적으로 널 도널드 월쉬의 『신과 나는 이야기』 시리즈가
있다.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 온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3 역시 대표적 칼럼 하나를 예시하자면 2021년 12월호에 실린
「기적 보고서」가 있다. 그리고 2021년에 발간한 e-Book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 성공기』 안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들이 왜 점점 더 저렇게 막가파가 되어 가는 거지?”, “정말 말세가 가까워져 가는가 봐.” 등등의 탄식이 너무 자주 머릿속을 스치거나 말로 터져 나온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7학년이 되면서 이룩해야 할 버킷리스트 1순위인 것이다.

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매일 훈련해 나갈 작정이다. “나의 영욕 간의 건강은 나의 의식을 통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나는 2024년이 ‘역노화(逆老化)’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과 세상이 악화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의 예고가 투사되는 환상일 따름이다. 거짓 환영에 속지 말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에만 나의 관심을 집중하자.”

엘살바도르 재방문하기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개인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어차피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필자의 칼럼은 줄곧 에세이 스타일의 글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읽어주시는 독자들은 그러려니 양해해주리라 믿는다. 몇몇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적용할만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2020년 3월에 갑작스럽게 근무지였던 엘살바도르를 긴급 탈출해서 귀국했다. 그러니 2년 가까이 흠뻑 정들었던 그 나라 교육부 공무원들이나 (몇 안 되는) 한국인 교포들과 변변한 작별 인사조차 못 하고 헤어졌던 것이다. 아내까지 함께 가서 2년 가까이 살면서 제법 붙어났던 개인 짐들과 틈틈이 사 모아두었던 기념품들조차도 대부분 살던 셋집에 그냥 두고 나왔으니 말해 무엇하랴.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2023년 말까지도 나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정부와의 계약은 귀국하고 3개월 만에 해지되어버렸고, 짐 가지러 한번 다시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약속도 결국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 있는 짐을 국제 택배로 부쳐오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것으로 대신 해야 했다. (결국 짐을 그곳 현지인 도움으로 2년 만에 받긴 했는데 이미 절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진 채 허접한 것들만 한국에 도착했다.)

이러한 사연인 고로, 나는 정말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곳엘 가보고 싶다. 아직도 내가 자문해주던 그곳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타향살이 정을 나누던 한국 교포들 일부와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손을 맞잡고 재회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절묘한 동시성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혹시 ‘동시성’이란 단어에 아직 낯선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사례를 귀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저 유명한 칼 용이 사용했던 용어라는 언급은 이미 여러 차례 나의 칼럼에서 한 바 있지만 말이다.

내 대학 동기이자 절친 한 명이 미국 LA에서 제법 자수성가하여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이 집 부부는 놀랍게도 재력과 체력, 그리고 열정 등 삼박자가 같은 나이 또래 그 누구보다 뛰어난 덕분에 1년의 반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 부부도 합류해서 함께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올해 (2023) 중에도 지난봄에는 그 친구 부부의 2달 프랑스 일주 여행 중간에 만나 열흘간 함께 남프랑스 여행을 흠뻑 즐겼고, 가을에는 마침 한국으로 2달 여행하러 왔을 때 또 달려가 만나 일주일 동안 여수와 순천 등지를 함께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나로선 절묘한 제안이 떠올랐다. 내년(2024) 중에 그 친구 부부가 LA의 집을 비우는 동안 우리가 가서 한 달 정도 대신 지내다 오면 어떨까 하는 조금은 ‘무대보’적인 제안을 들이냈는데, 이 고마운 친구는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그래도 된다는 답을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버킷리스트 하나의 성사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이다. LA에서 내가 다시 방문하고

싫은 엘살바도르는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간다. LA에서 우선 좀 지내며 시차 적응을 먼저 한 뒤 잠깐 엘살바도르를 다녀오는 일정을 만들면 기가 막힌 여정이 될 것이다. 어차피 그 나라는 오래 지내기엔 많이 열악한 나라이니 일주일 정도 지내며 보고픈 지인들 만나 정을 나누고 지나간 추억들 잠시 더듬고 오면 딱이다.

여기서 또 7학년짜리의 뻔한 훈수 한마디하고 넘어가려나.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하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라. 원하는 바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절묘한 환경들이 동시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 짜릿한 기쁨의 나날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역노화의 원년 만들기



이 표현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나의 세 번째 버킷리스트에 올리기에 충분한 중요성이 있는 선언문이기도 하다.

최근에 나는 실제로 『역노화』⁴라는 제목의 책을 탐

4 부제: 절게 오래 사는 시대가 온다, 세르게이 영 저자(글), 이진구 번역, 더퀘스트, 2023년 08월 21일

독했다. 이 책의 저자는 심지어 10~20년 안에 인간의 수명이 120~150세까지 늘어나는 의과학이 확립될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제법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펼쳐내고 있다. 그냥 수명만 늘어난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이들이 많을 것이지만, 이 책의 부제처럼 우리 같은 7학년 이상 된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3학년 정도로 다시 젊어지면서 동시에 수명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니 그냥 콧방귀만 뀌지 말고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는가?

인터넷에 올려있는 이 책의 소개문을 잠깐 인용한다.

“노화와 장수 과학은 파격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안에 인간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장수 그 자체가 아니다. 노화 자체를 예방하고, 멈추게 하고, 역전시켜 ‘젊음을 유지한 채 오래 사는’ 장수가 가능해진다는 게 핵심이다. 인류는 곧 ‘역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자 세르게이 영은 투자자 출신으로 ‘장수비전펀드’를 설립,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주요 생명공학 회사를 지원해온 ‘세계 장수 분야의 100대 리더’다. 그가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안내하는 진단 과학·정밀의학·유전공학·재생의학의 발전상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준비하게 한다.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늙지도 병들지도 않으며 150년 넘게 사는 인생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생물학적·기술적·윤리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노화 혁명을 완벽하게 다룬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역노화 시대에 대비하기를 권한다.”⁵

이와 관련하여 한마디만 더 하고 이번 칼럼을 마무

5 출처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8420599>

리하겠죠. 나는 본지 칼럼에서, 그리고 귀국 후 한동안 만들어 올렸던 유튜브 영상들에서 자주 양자역학과 형이상학, 그리고 고대 종교 전통들의 주장이 절묘하게 일치되는 부분들에 대해 요약 소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진술 중 하나는, “모든 만물은 쪼개고 쪼개 나가다 보면 99.9999%가 공간인 미립자를 공통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미립자는 결국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에너지란 신비스러운 ‘의식(意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여기의 주제인 ‘역노화’와 연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 인간의 몸도 결국은 ‘의식’이 근원의 재료인 것이니, 우리 의식을 초공정으로 완전히 무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명을 두 배 정도로 늘리거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개인적 수다’처럼 들리는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존경하는 그대에게 새해에는 무한의 은총이 저 창밖에 내리는 함박눈처럼 쏟아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바이다.

황재일 경영학박사

현) 유튜버, 칼럼니스트

현) (주)나도주개 경영고문

전) 엘살바도르 교육부 자문관

(정보통신산업진흥회/NIPA 파견)

전) 성신여대/aSSIST 겸임교수

전) 베스트러닝 대표

전) 한국IBM 컨설팅 전문위원



뒤늦은 나이에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금융 트레이딩에 뛰어든
아마추어 FX 트레이더의 7년간의 기록!

황재일 박사의 「바보연금술사의 투자 성공기」 이북 출시

‘바보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저자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금융시장에서
험난한 모험을 통해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자신만의 성배!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성공기
그 이야기속으로 초대합니다!

만들어 가는 미래: 박진영과 골든걸스

김승범



1. 미래? 운명?

2024년에 인류가 써나갈 역사는 무엇일까?

2024년에 인류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것일까?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이 정확한 입장인지에 대해 돌로 갈려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이 규칙성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규칙성을 경향성으로 이해하며, 인류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규칙성을 법칙성으로 이해하며, 미래는 인류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에서 규칙은 '발명'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인류가 스스로 발명한 규칙에 의해 만

들어지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서 규칙은 이미 정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는 어떤 식으로든 때가 되면 인류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2. 역경과 교리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문명은 전염병으로는 매우 오랜만에, 그리고 전쟁 등 재해로도 오랜만에 커다란 역경을 맞이했다. 2020년 이후 2여 년간의 역경이 지나가는 듯하자, 인류는 교리(doctrine) 점점이 나뉘었다. 세계 경제는 거시경제의 오랜 교리에 따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어떤 지역은 또 다른 오랜 교리에 따라 총 들고 싸우는 전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3. 심신미약

참으로 참신하지 않다. 50대 초입에 들어선 나에게도 코로나19의 역경은 태어난 이후, 청년기까지 가난했던 국가의, 가난했던 가정을 운명으로 알고 살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겪는 전염병으로 인한 역경이었다. IMF 사태와 같은 문명적 역경은 있었으나, 한반도에 이토록 오랜 기간 전쟁이 없었던 시기도 드물다고 한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중국, 일본 등 수천 년간 우리와 갈등을 겪었던 두 집단을 넘어 러시아, 미국과 같은 현대 열강에 이르기까지,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4대 강국 중 3국과 국경을 접하고도 모두를 우습게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역경도, 전쟁으로 인한 역경도 없었던 결론이 이런 태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6·25 이후 전쟁이 없다 보니 오랜 평화에 감을 잃었거나, 혹은 먹고살 만해지니 세상이 우습게 보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이건 상관없다. 이 둘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떠오른 단어가 있다.

“심신미약(心神微弱)”

진정한 심신미약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심신미약은 맹정신에 사고를 친 후 법정에서 하는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우리는 지금 자기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자율 조정과 전쟁과 같은 뻔한 교리로 역경에 대처하듯, 우리는 습관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막상 “왜?”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 수십 년의 평화가 끝나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한 시기가 끝난 후 “왜 그랬어?”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아니었나 봐요.”

심신미약이다.

4. 상황 파악

심신미약에서 벗어나 상황 파악 좀 하자.

코로나19 이후 세상에 대한 거시적 예측력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순간순간은 순발력이 떨어져 뒤뚱거리며 쫓아갈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인류는 뻔한 방법으로 역경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다 예견되었던 일 아닌가?

그렇다면, 뻔히 아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측일까? 과연 우리의 예측력이 유지되는 것일까? 우리의 뻔한 교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뻔한 교리로 뻔한 방식을 통해 뻔한 결과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다가온 미래는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게 그냥 우리의 온몸을 내던져 맡기고 있는 것이다.

5. 그래서 어쩌자고?

이미 처음에 말했다, 발명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맞이하자고.

2023년 말, 2024년 초를 이어가는 이 상황에, 한 남자가 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짓도 했고, 뻔한 짓도 해서 사람들에게 헛웃음을 일으키고 있다.

청룡영화제에서 청룡의 안주인 김혜수를 압도하려는 듯 으리으리하게 드레스를 차려입고 멋진 분장을 하고 등장하더니 노래는 영 아니었다. 지금도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놀림을 받는다. 심지어 본인이 그날에 대해 명예회복한다고 직접 나서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실수도 실패도 없다. 이 사나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콘텐츠고 모든 것이 다 IP(지적재산권)이다.

노래 시작할 때 흐르는 그느끼한 속삭임….

“...JYP...”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기 반 소리 반 속삭임의 주인공, JYP엔터테인먼트 COO 박진영이다.

십수 년 전부터 환갑 때 자신이 키워낸 걸그룹과 콘서트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여전히 몸 관리 잘 하며 올해도 신곡을 발표한, 데뷔 30년 차 원로 댄스가수인 X세대 박진영이 사고를 칠 기세다.

떠동갑도 넘어선 66세 누나 이은미를 비롯하여 막내가 57세인 이은미 등 네 명의 디바를 모아 골든걸스(인순이, 박미경, 신호범, 이은미)를 만들었다. 걸그룹 만들기를 라면 끓이기보다 쉽게 하는 K-pop 공장장 JYP의 취미생활(?)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

《골든걸스》가 런칭한 시점이 어떤 상황인가.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모아놓는다는 실력과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 시즌 3가 피크를 향해 달리고 있고, 2020년대를 황당스럽게 트로트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 3가 막을 올리던 때이다. 그뿐인가, 한쪽에서는 《스트리트 걸스 파이터》 시즌 2(종영)와 《현역가왕》, 《유니버스 티켓》, 《오빠시대》(종영)까지, 코로나19를 오디션으로 극복한 한국인들의 염원을, 오디션

과 경연들이 거의 매일 밤 사람들의 일정표를 콕콕 채워주던 때였다.

그런데 박진영이 미국에서는 신인 걸그룹 VCHA를, 일본에서는 신인 보이그룹 NEXZ를 만들다 말고, 갑자기 평균연령 60세의 386세대 누나들을 모아, 걸그룹을 결성시키고는 누나들을 끌고 다니며, 온 방송국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 이 누님들도 덩달아 5세대 막내 걸그룹이라며 모든 아이돌에게 “선배님~”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싱글에 이어 라이브 싱글도 발표했고, 이제 해외 녹화에다가 내년에는 앨범도 발표한다고 한다.

갑자기 박진영은 50대가 되면서 왜 이런 일을 할까? 장년층이 트로트에 질리기를 바라고,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일까? 아니다. 박진영 본인도 여러 차례, “인순이, 박미경, 신호범, 이은미의 기존 팬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닌, 새로운 팬을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6. 상황진단: K-pop의 위기

K-pop은 위기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BlackPink)는 2023년 후반기를 사실상 개점휴업했다. 여전히 트와이스(Twice),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라는, 스타디움 콘서트가 가능한 JYP엔터테인먼트의 양대 산맥이 굳건하고, 하이브의 소년 가장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세븐틴(Seventeen)이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BTS와 블랙핑크가 보여준, 전세계 대중가수들이 느낀 새로운 도전자의 맹렬한 기세는 한풀 꺾였다. 2020년 전후로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던 K-pop의 열기에 관심을 갖던 외국 아티스트들도 K-pop을 더 이상 두려운 경쟁자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임영웅의 팬덤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임영웅의 발길이 머무르지 않는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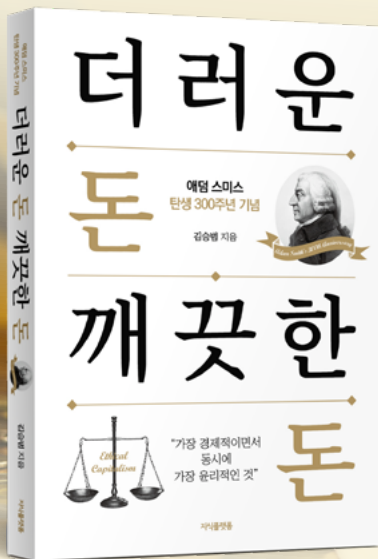
애덤 스미스의 윤리적 자본주의

Ethical Capitalism



Adam Smith's 300th Anniversary

애덤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자본주의란?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이하여, 애덤 스미스의 생각 중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한 애덤 스미스가 우리에게 진정 남기고자 한 것은 시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동시에 윤리적으로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본주의에 순응하며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보완하자는 태도이건, 자본주의의 문제를 급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건 목표는 자본주의 안에서 인간이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자본주의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식플랫폼

의 행사시장은 또 다르다. 오디션 열풍을 타고 트로트 가수들이 전국 행사장을 장악한 가운데, 외국에서 K-pop은 아이돌, 국내에서 K-pop은 트로트라는 두 시장이 완전히 점점 없는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 양분된 K-pop의 이슈를 해소할 묘안을 누가 내놓을까?

최소한 지금 가장 뜨거운 세 개의 오디션·경연 프로그램인, 《싱어게인》, 《내일은 미스트롯》, 《현역가왕》은 아니다. 이들은 양극화된 K-pop의 한쪽에만 팔대를 깊이 꽂기 위한 재료를 공급하지는 ‘양극화 가속 전략’ 위에서 있다.

7. 골든걸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

나는 박진영과 골든걸스의 행보를 보면서, 특히 박진영이 골든걸스 프로젝트는 JYP엔터테인먼트와 별개의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골든걸스 프로젝트가 양분된 K-pop 시장의 이슈를 해소시켜 줄 새로운 길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있다.

너무나도 눈에 보이고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골든걸스》라는 판때기는, 박진영이 제일 잘하는 ‘걸그룹 만들기’라는 뻔한 교리를 또 펼치는, 뻔한 일이라는 점이다. 박진영이 등장할 때마다 하는 모든 행동은 그 뻔한 행동들이다. 이걸 분명히 발견하자고 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그의 의도는 발견되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을 하자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맴돈다.

뉴진스(NewJeans)와 아이브(Ive)의 노래를 수천 번 들었지만, 정작 곡의 가사는 골든걸스가 부를 때 처음 귀에 꽂혀 가사가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다는 아이돌 팬의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지금 소비되는 K-pop의 속성은 무엇인지, 팬덤은 스타의 무엇을 바라보고 팬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출처: <https://program.kbs.co.kr/2tv/enter/goldengirls/pc/index.html>

확실한 것은 《골든걸스》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K-pop 콘텐츠인, 명절 최고의 시청률을 보장한다는 M본부의 최종병기, 《아육대: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보다 K-pop 역사에 강력한 한방을 주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육대》마저도 양극화에 기여한, K-pop의 현재 이슈에 대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고 있다.

8. 만들어가는 미래

한 번쯤은 《골든걸스》를 직접 보며,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골든걸스 멤버를 모으는 과정에서 66세의 인순이는, 지금도 항상 무대에 오르기 위해 몸과 목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며, 자신을 불러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지 못함을 보여줬다. 58세의 박미경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었다고 자신이 인생을 바친 무대에 대한 현실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57세의 신효범은 지난 5년여 사이에는 《불타는 청춘》과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가수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MZ세대

에게 그녀는 주전 센터백 ‘신효백’이다. 박진영은 이들에게 엉뚱한 제안을 했다. 옛날 팬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팬을 만들어 주겠다고.

박진영이 골든걸스에게 새로운 팬을 만들어주는 것은, 일의 내용으로 봤을 때, 박진영에게는 어차피 ‘걸그룹 만들기’라는 뻔한 고리로 뻔한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골든걸스에게는 분명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명되는, 최소한 1년 전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일 것이다.

당신도 2024년 미래를 만들어보자.



김승범 경영학박사
경영학, 철학, 윤리학, 법학, 복잡계를 전공.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음악, 사이버, 우주 등 전통적인 경영학을 넘어서 다양한 시공간의 산업을 연구
현)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
현) 주에스크 대표이사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CJ E&M/메조미디어 전략기획담당 부장

저서: 「더러운 돈 깨끗한 돈」(2023), 「분석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빅데이터」(2015, 공저) 외 다수

온라인 미디어 정보의 법과 규제 유형

메타 사피언스



1. 온라인에서 문제 되는 정보 유형

온라인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 사이버 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온라인 음란·선정·유해물 유통, 권리침해 정보 유형(재산권으로서 저작권 침해, 개인의 인격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금융사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실제 사기를 당했다는 응답자는 여성, 중고령자가 많았다. 사기 이유는 심리적 취약성(지나친 수익을 바라거나 공격적 투자성향 등), 은퇴자산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 등이었기에 금융소비자 교육, 사전적 예방정책이 필요할 것이다(김은정·김은미, 2014).

일단 온라인상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이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교육당국, 기업, 학교, 디지털 취약층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

인 리터러시 교육, 홍보, 캠페인이 상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 금융정보 리터러시 등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IT기술은 남성, 청년층, 고학력 집단에게 유리한 반면 노인, 여성, 저학력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Sackman & Weymann, 1994). 특히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의 경제활동, 사회·문화생활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는 세대 격차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지털 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김학실·심준섭, 2019).

앞으로 사이버사기 범죄는 단순 사칭을 넘어 AI 기술을 이용하여 진짜 같은 가짜 광고와 허위정보를 진짜처럼 생성하는데, 이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 부모형제나 자식의 음성을 모방하여 복제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챗GPT와 같은 챗봇을 포함한 최신 AI기술로 자료를 작성하고, 딥페이크 영상으로 조작하여 사람을 속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사이버사기와 관련해서 과도한 형사법적 규제는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해결만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융합경영리뷰』, 2023, 6월).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례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관할 1,700여 개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당국의 책임과 목격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가정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마련, 학생 대상의 카운슬링 제공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 사이버공간 이용이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초중고, 노인대학 등에 사이버 안전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교육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추진의 효율성 도모가 필요하다(충북연구원 2020).

2) 온라인 음란·선정·유해물 유통

사이버에서 음란물 관련하여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웹하드, 포털사이트, 블로그, 개별 사이트, SNS(특히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틱톡)는 별도의 인증 없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 게시판,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 매우 많다. 이처럼 청소년 유해정보, 음란정보가 사이트, 게임, 광고, 가상 인간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전방위로 노출되고 있다.

‘음란’(『형법』 제243조)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예술·사상·과학·의학·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음란물은 성표현물 중 유통이 금지된 표현물로 규범적 개념이다. 성표현물은 성(性)을 소재로 하거나 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며, 청소년도 볼 수 있는 성표현물(청소년 대상 성교육 교재), 성인은 볼 수 있지만 청소년은 볼 수 없는 성표현물(이른바 성인물),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볼 수 없는 성표현물(이른바 음란물)이 있다(황성기, 2017). 음란물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형사법적 규제(표현물의 제작·배포 행위를 형사별로 처벌하는 법적 통제)와 행정법적 규제(음란물에 해당하는 표현물의 제작·유통 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법적 통제)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경우 음

란물 유포로 처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에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기본적으로 통신매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사이버상 음란물을 규정한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유튜브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성인인증 실시)의 경우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기 전 해당 플랫폼 자체적으로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유해 정보’와 관련하여,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예시와 연령 제한 콘텐츠 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며 연령제한의 경우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다(『융합경영리뷰』, 2023. 12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 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따라 금지되지는 않지만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르는 내용의 표현물을 지칭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표현이며 관리의 대상이다. 성인물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제작이 허용되고 성인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통, 접근, 이용이 불허되는 것이다. 다만 성인물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통제(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확인, 성인인증 절차 등)가 쉽지 않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청소년의 접근통제가 쉽지 않다고 하여 그 성인물을 불법표현물로 규정하거나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헌법」상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3) 온라인 도박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형법)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

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온라인 도박이란 온라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도박 및 불법 사행행위를 지칭하며 주로 도박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도박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박사이트와 허가받지 않고 승자투표권 또는 복표를 발행하는 불법 사행행위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도박 게임 사이트는 고스톱·포커·룰렛·블랙잭·바카라 등의 사행성 게임을 포함하고 이용자들이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 등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적합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환전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된다. 「형법」 제246조 및 제247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6호에 따라 도박사이트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도박의 범죄성립 요건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는 재물을 걸고(재물성), 우연한 승패의 결과(우연성)에 따라, 사이트의 운영 수수료 등을 받고(영리성), 약속한 금액(환금성)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 가능하면 범죄가 인정된다. 청소년들이 도박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 피싱, 마약 등 2차 범죄 및 추가 범죄에 연결되고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정신적·심리적으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은 쉽게 큰돈을 버는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가볍게 시작한 도박이 중독이 된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있어 도박은 판단만 잃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자살 생각과 시도, 불안함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 학교 부적응,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 붕괴, 2차적 범죄(마약, 성매매 등) 등 사회적 관계성 파괴라는 복합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 도박 빚을 갚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해킹된 핸드폰,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게시판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나 마약 거래에 연루된다. 도박을 하다 빚을 지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성매매에 동원되거나 성범죄를 빙자한 고소 협박으로 돈을 갈취당

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단순 도박으로 시작하여 도박 중독이 되고, 2차 범죄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도박하는 친구와 교류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도박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게 되면 계좌에 입금되니 도박에 대한 충동 조절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도박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폴더폰을 사용하여 사이트 자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다(『융합경영리뷰』, 2023, 10월).

4) 사이버에서의 저작권 침해

유튜버 창작이 폭증하고 있다.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출현하고 있다. 흔히 제작을 하다 보면 음악, 영상, 사진, 효과음까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원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취미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콘텐츠를 게시하면 저작권이 발생하고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저작권 보호나 침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무심코 유튜브 영상 안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포함하거나 유포했다가는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범위는 음악, 댄스 영상 커버, 영화, 책부터 디자인, 폰트 사용까지 다양하다. 재가공하거나 MR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작을 식별할 수 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하나의 매체, 문화로 자리 잡은 유튜브와 창작 콘텐츠. 파급력이 강한 만큼 창작자는 저작권법과 사례를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제작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융합경영리뷰』, 2023, 7월).

인공지능(AI)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논의는 우선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또는 법적 성격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 추론을 할 수 있다. 즉 객체였던 컴퓨터 시스템이 인공지능이란 이름으로 행위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했다(손승우, 2016). 둘째,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물성 또는 저작권 성립 요건이다. 즉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창작한 뉴스, 음악, 방송프로그램, 소설 등의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창작성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의 관여 형태, 인공지능의 이용 형태,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 유형에 따라 저작물 성립요건을 어떻게 논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쟁점은 저작자를 누구로 볼 수 있는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넷째, 인공지능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에서 다른 저작물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의 기능을 하는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조연하, 2018).

5) 사이버에서 인격권 침해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 보호법익은 '명예'이며,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감정으로 분류된다. 외적 명예와 명예감정은 사실적 명예개념으로, 내적 명예는 규범적 명예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희경 2009).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명예'의 의미는 외부적 명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로서 서로 같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일반 명예훼손 및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라고 보고 있어서, 비방의 목적, 사실(허위)주장, 공연성, 명예(사회적 평가) 훼손 등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중 인터넷에

적시된 게시물은 일부 비공개물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공공연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로 간주되어 공연성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특정성, 비방의 목적, 사실적시(및 허위사실 적시) 여부, 과도한 모욕적 표현 여부, 사생활 노출, 공인 혹은 공적 관심사 여부 등 요건을 따져야 할 부분이 많다.

최근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야외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의 특성상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모습(초상)이 노출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다. 초상권 침해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자신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따라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융합경영리뷰』, 2023, 9월).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온라인상에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표현이나 욕설, 비난 문구 등이 적힌 경우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무단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생활 침해는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다. 주요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 보호의 범위가 두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녀의 불륜이나 치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추문내용을 언급하거나, 제3자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이 다른 인터넷 공간에 매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인도 델리고법의 판결은 유튜브 영상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유튜브의 법적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인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게시를 중단하고 차단할 것을 명령한 점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다. 아울러 유튜브가 단순히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업로드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구제할 법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현정, 2022).

6) 디지털 성범죄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deepfake) 범죄도 함께 발전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가짜 동영상 또는 제작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딥페이크는 원래 존재하는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 컴퓨터그래픽(CG)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과거의 기술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합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누군가의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일반적인 정보와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여 내용을 규제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검토하기도 한다. 또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메타버스(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복합된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에서는 성별, 나이 등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익명이 보장되면서 사람들이 범죄에 노

출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부족하다. 법과 규범이 없는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가령 아바타를 이용한 스토킹, 성희롱,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에서 아동 보호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경험 시간, 교류하는 상대방, 대화, 아이템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며,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메타버스 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방안이 요원하고 플랫폼 업체의 자율적 규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 학교,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 등 개발·운영·이용자(메타버스 플랫폼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들이 안전하게 경험하고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융합경영리뷰』, 2023, 8월).

〈표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1항 ‘불법정보’의 대상

구분	주요 내용
제1호 (음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2호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3호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의2 (개인정보 거래)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의3 (불법무기류 정보)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제7호 (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9호 (기타 불법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온라인 미디어 관련 규제 법

전통적인 방송매체는 「방송법」에 의하여 진입규제(허가, 승인, 등록), 사업자 자격제한, 편성규제, 내용규제, 등급분류의무, 영상물 보존 의무 등 강한 공적 책임(매체가 소수이고 독과점 체제였던 과거의 희소한 주파수 자원 분배 논리 기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는 시장 진입규제, 편성규제, 내용규제, 등급분류의무, 영상물 보존 의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뉴스의 영향력이 컸다면, 인터넷 발달로 인해 현재에

는 온라인 매체(인터넷 방송 등)를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예를 들어 유튜브·아프리카TV 등은 지상파방송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지만 방송이 아닌 온라인 통신매체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 전기통신역무 외에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함)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 자율규제 적용대상이다. 온라인 매체의 내용규제는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사생활 침해 및 명

〈표 2〉 전통적 방송과 인터넷 개인방송 비교(자료: 조소영(2019) 재구성)

구분	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네트워크와 서비스	방송망,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망, 인터넷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네트워크 규제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사업자 및 지위	방송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아동청소년 보호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내용 규제 대상	방송 프로그램	정보통신 콘텐츠
내용 규제 근거 법규	방송법(심의규정)	「정보통신망법」(심의규정),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유해 매체물), 「형법」, 관련 법규(불법성 여부 사후심의)
공적 책임 부담 여부	있음	없음
서비스 사업개시 절차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단 자본금 1억 미만은 신고의무 면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신고 대신 등록
사업자 결격사유 규정	있음	없음
등급 분류 의무	있음	없음
방송편성, 채널구성 관련 규제	있음	없음
방송 내용 보존 (저장 의무)	있음	없음
사전 심의 적용 여부	적용	적용 안 함(「정보통신망법」 44조7: 사후 규제)

예훼손 등 인격권보호, 청소년보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과 같은 규제들이다.

온라인 미디어는 정보의 전달방식과 통제방식의 관점에서 양방향성과 탈중앙통제적인 특성 때문에 전통적 규제모델이 적용되기 어렵다. 오늘날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은 정보에 대한 접근, 업무수행,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독점적인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중계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경제적, 사회적 맥락은 디지털 서비스의 규제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을 포함한다. 디지털플랫폼은 플랫폼 소유자가 추구하는 경제적 이윤이나 기타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행동을 제약한다(송해엽, 2021).

이처럼 인터넷 미디어가 영향력은 매우 지대해졌지만 전통적 방송에서의 규제 모델을 적용하기는 기술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주파수 희소성 논리에 근거한 방송사업자의 진입규제(인허가 등)가 중요했지만 정보폭증 시대에는 정보내용에 대한 정교한 규제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나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존재하며,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3. 국내외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 대응

1)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등장 배경

기술적 측면에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및 SNS를 통해 누구든지 글이나 영상을 게시할 수 있게 됐고 연결성과 확산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부정적 이슈도 발생하였다. 전통적인 방송사나 신문사의 경우 뉴스 제작 시 기자가 취재를 하면 다층적 확인 및 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하는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허위조작정보는 걸러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게이트 키퍼(gate keeper)가 없으며 검증절차 없이 정보가 무한정 유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허위정보가 쉽게 단시간에 확산되고 있다.

2016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아닌데 마치 언론사인 것처럼 꾸며 사실과 다른 뉴스를 만드는 사례가 많았다. 기존 언론사와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를 유사하게 만든 후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였다. 이처럼 거짓으로 꾸며 낸 뉴스라는 의미에서 '페이크 뉴스(fake news)'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페이크 뉴스(fake news)를 번역하여 국내에서도 가짜뉴스라고 불렀다.

인지도 높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정보 자체가 사실과 다른 영상이나 글이 대부분이다. 이용자가 좋아하지 않거나 성향에 맞지 않는 정보라면 진실한 정보이더라도 가짜뉴스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페이크 뉴스(fake news)가 아닌, 정보가 허위라는 점에서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

2)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정의

가짜뉴스에 대하여 황용석·권오성(2017)은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 포장한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적 측면에서 정보의 허위성과 유포의 의도성, 형식적 측면에서 언론보도 형식의 차용성을 갖추어 작성한 경우를 지칭하고 있다(윤성욱, 2018). 또 유언비어, 잘못된 사실관계가 포함된 기사, 낚시의 미끼성 기사, 편향된 견해만 제시한 기사 등을 가짜뉴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배경으로 기술적 요인(SNS 등

을 이용한 신속한 연결, 확산), 수용자 요인(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 확증편향에 따라 자신의 기존 생각을 강화하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공유하는 집단극화 현상) 등이 있다.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거짓 선동, 편 가르기로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둘째, 저널리즘의 형태를 갖추고 정파적으로 활용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셋째, 전통매체의 공론장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심홍진, 2017).

허위표현 관련하여 「방송법」은 허위, 과장 방송광고를 금지하며(동법 제86조), 「정당법」은 당 대표 경선 등과 관련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와 배포한 자를 처벌하며(제52조) 허위등록신청도 처벌하고 있다(제59조). 온라인상 허위정보 규제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처벌하는 규정(동법 제89조제1항)으로 자기 명의가 아닌 허위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선전화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결정 이유로 공익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법 집행자의 해석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금지되는 표현행위가 무엇인지 이 조항은 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박아란, 2019).

3) 해외의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 정보 규제

해외에서도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과 영국이 허위조작정보의 발원지로 알려진 SNS 규제에 착수하였고 미 연방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영상규제를 시

작했다.

EU집행위원회는 강화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규제를 적용받는 19개 서비스(구글 검색, 구글 맵, 구글 쇼핑, 유튜브, 구글 플레이,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애플 앱스토어, 아마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등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 명이 상인 서비스)를 지정했다(2023년 8월). DSA 시행(2024년 2월 17일 예정)과 관련하여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주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법인 미국 통신품위법(230조)의 적용을 받았다. 그동안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치했다고 지적받았다.



구글 본사 전경

한층 강력해진 DSA 규정은 플랫폼 기업이 불법정보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용자의 정치적·인종적 견해·성적 취향을 근거로 한 광고는 하면 안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겟광고도 하면 안 된다. 정기적으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AI)·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합성 동영상, 이미지를 노출할 경우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조선일보』, 2023. 4. 27.).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독일 「네트워크시행법」(2017년 제정)은 독일 형법에 규정된 21개 범죄(공연한 범죄선동, 범죄단체조직, 테러, 모욕, 협박, 혐오표현, 아동음란물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여 정보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명백하게 위법한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자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외의 위법 게시물은 7일 이내에 삭제, 차단할 의무를 플랫폼사업자들은 부담하며 삭제, 차단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박아란, 2019). 미국의 경우 가짜 뉴스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 공개로 사생활 침해,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유발 등으로 규제될 수 있다(Park & Youm, 2019).

※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소개

디지털서비스법(DSA)란?

DSA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권리들이 보호되는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사업자 규정과 규제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DSA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능과 규모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정보화 사회 서비스, 중개서비스로 크게 분류한다. 중개서비스는 단순 전달서비스(단순 정보전송 및 망 접속), 캐싱 서비스(정보전송 효율화를 위한 임시정보 저장), 호스팅 서비스(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저장)로 분류한다. 네트워크 기능의 작동 및 효율성을 위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자동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단순전달, 캐싱

과 달리 호스팅은 이용자의 의도적 요청에 따른 정보 전송이 이루어진다. 즉 호스팅은 공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본다(박찬경, 2022).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된 콘텐츠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조치(DSA 제17조제1항)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에 대한 삭제, 접속차단, 낮은 가중치 부여를 포함한 발견 가능성 제한, 둘째, 수익화 수단의 중지, 종료, 기타 제한, 셋째, 서비스 제공의 전부, 일부의 중지, 종료, 넷째, 이용자 계정의 중지, 종료이다(임호준, 2023). 조건부 면책 요건 관련한 사항은 <표 3>과 같다.

온라인 제공자의 추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DSA 제22조에 근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지정신고자가 한 신고가 우선적으로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항). 지정신고자는 불법정보를 탐지·식별·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성, 역량,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의 독립성, 성실성, 정확성, 객관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각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 코디네이터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제2항). DSA가 차등적으로 부가하는 주의 의무 사항은 <표 4>와 같다.

4. 온라인 미디어 정보 규제: 공적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공적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공적규제’는 정부에 의해 직접 수행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법령과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행정규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공적규제는 법적규제로 정부 기관에 의해 주도된다. 해당 국가 내에서는 작동하지

〈표 3〉 조건부 면책 요건 요약(구체적 내용은 DSA 제3~5조 참조, 자료: 박찬경, 2022)

단순전달	개성	호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전송을 스스로 개시하지 않을 것 - 정보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 전송되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 정보 업데이트 시 업계 표준에 따라 정해진 규칙을 따를 것 -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위한 데이터 획득시 관여하지 않을 것 - 정보의 원저장 위치에서 정보가 삭제되었거나 접속이 차단된 것을 인지하는 즉시 개성된 정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정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 - 정보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한 즉시 삭제, 접속 차단했을 것 -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하에서 불법정보를 게시했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발생 시 불법 정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표 4〉 DSA가 차등적으로 부가하는 주의 의무사항 요약(자료: 박찬경, 2022)

단순전달	불법 정보 제공	투명성
중개서비스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삭제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연락담당자, 법적대리인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보고(수령한 명령수,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수, 삭제에 대한 항의의 수, 콘텐츠 관리의 방식과 횟수 등)
호스팅(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정보 신고에 대응하는 메커니즘 	
플랫폼(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에 대한 항의 처리 시스템 - 분쟁에 대한 국가에서 인증하는 중재 시스템 - 신뢰 기반 신고자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 - 특히 위험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국가에 신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투명성 보고 의무(분쟁수, 이용정지 처분, 콘텐츠 관리를 한 자동화된 수단에 대한 정보) - 광고 투명성
대형플랫폼(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정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주기적 위험 평가 - 평가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의무사항 수행 관련 외부감사 -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 광고 투명성에 대한 추가 의무 - 정부의 평가와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공개 의무

〈표 5〉 인터넷 자율규제, 규제된 자율규제, 공적규제(자료: 송해업, 2021)

공적규제	규제된 자율규제(공동규제)	자율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규제로 해당 국가 영역 내에서만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행위자가 공동주체로 참여 - 정부가 연합기구를 승인하여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일관된 기준, 원칙을 가지고 규제 - 해외사업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에 직면한 사업자 스스로가 규제를 이끌어가는 규제방식 - 사업자별 차등적인 규제기준과 원칙

만, 국가 간 협력, 해외사업자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공동규제’는 정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행위자가 공동주체로 참여한다. 자발적 자율규제는 정부 적극 개입 없이 돌아가지만 규제된 자율규제는 정부의 승인을 의미한다. 정부가 연합기구를 승인하여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일관된 기준, 원칙을 가지고 규제한다(송해엽, 2021).

‘자율규제’는 사업자와 단체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나 구속력 없이 실시된다. 다만 자율규제는 의미가 다의적이며 규제당국(정부), 기업, 이용자가 얼마나 관여하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자율규제 방식을 공동규제(co--regulation) 혹은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라고 개념화하는데 이는 규제의 단계별로 공적 주체와 시장 행위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의 자율규제이다(한국 인터넷기업협회, 2022. 8.). 이처럼 자율규제를 제외한 자율규제 유형을 공동규제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 방식과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공동규제(co--regulation)는 정부의 역할이었던 규제영역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효율성, 수용성 등을 높이는 방식이다(『아시아경제』, 2021. 11. 18.). 규제된 자율규제 개념은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업자가 주도하는 자율규제보다는 정부와 제도적 협력 아래, 사업자와 민간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가 규제 실효성, 지속성 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어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공적규제(행정규제)를 제외하면, 공동규제는 자율규제의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기준을 정하고, 내규와 자체적인 벌칙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개입 없이 내부합의를 통해서 운영되고, 비용과 운영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다. 반면 이해관계자가 ‘상징적 동조’만 할 뿐, 제도운영에 의지가 없다면 규제 효율성은 미약할 수 있고, 무규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선의(good will)에 의존해야 하는 규제방식이다.

1) 공적규제

국가가 규제 권한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기준과 규제기구 운영에 대한 개입과 기구운영을 위한 인사와 예산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를 행사한다. 이처럼 공적규제는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하며 민간에 위탁하거나 자율로 맡기기에는 일관된 기준이나 표준을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당한 시스템이다.

행정규제의 장점은 동일 사안에 대한 동일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기술이 등장할 때 제도적 경직성으로 산업발전을 억제할 수 있고, 규칙위반자가 많아질 경우 사회적 유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새로운 창의 산업이나 산업 영역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온라인 통신의 정보유통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수사기관, 규제기관의 담당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모바일 메신저, 앱 등 물리적으로 엄청난 사이트와 비약적인 네트워크 발전,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으로 불법·유해 표현물의 생성, 확산이 빛의 속도만큼 빠르기 때문이다. SNS 등 온라인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전파, 공유되는 표현물에 대한 사후적 규제와 신속한 대응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온라인 미디어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거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 국내 규제기관에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적규제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은 매체 특성상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가 급증하고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어려운

국제적 정보통신망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속성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부의 규제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김희경 외, 2022).

2) 공동규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되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동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규제 시스템이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규제와 관련하여 협의의 의미에서 정부가 국가의 규제직무 중 일정 부분을 공식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부터 광의의 의미에서 민간이 스스로 규제할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규제까지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Price & Verhulst, 2000). 공적부분의 개입 없이 완전히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를 포함하는 경우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개입과 함께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규제의 전부이든, 일부이든 일정 부분 민간이 규제의 주체가 되어 규제한다면 그 부분을 자율규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결국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향선, 2012).

자율규제 범위가 넓지만 대체로 민간 영역이 전통적인 정부 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그러한 민간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적극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율규제는 국가와 민간의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이다(Price & Verhulst, 2000).

국가가 규제를 민간에 위탁하지만, 법률을 통해서 규제기준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협력 규제기관이 제재를 결정할 사안 가운데 과징금 등 제재 이행에 필요한 사안은 정부 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이다. 행정기관과 민간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공동규제는 '규율화된 자율규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협력의 당사자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규율을 제시하고, 그 규율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칙과 제도로 설계하여 실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행정기관은 규율을 제시하지만, 자율규제 제도 운용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공동규제의 장점은 국민의 기본권이 행정집행의 효율성보다 우선해야 하는 미디어 영역에서 규제 일부를 민간에 위임하여 운영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고, 제도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행정집행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제를 위한 합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고, 기구 운영을 위한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동규제 기관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체 수익이 없을 수 있다. 재정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동규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정부가 일정하게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정부에 의존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 자율규제

자율규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규제란 사업자, 사업자 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는 자정 노력으로서의 규제 활동을 총칭한다(이민영, 2010). 즉 피규제자였던 개인, 기업, 업계 등이 정부규제의 부적당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대하여 기업이나 업계, 개인이 자율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장치들은 정부규제와 완전히 독립해 있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민간 또는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Price & Verhulst, 2000).

이처럼 자율규제는 개인·기업·산업계 등이 규제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만든 기준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며,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를 운영하는 행위자들이 직접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성을 부여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규칙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속도와 해결책 모색이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자율규제는 정부의 기준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개인과 업체가 상호 동의하에 협의하여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수·유승호, 2009).

공적규제는 입법, 법개정 등 시간적 소요, 인력 충원 등 행정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율규제는 첫째, 온라인 기술 발전 환경에서 사업자들의 기존 관행이나 경영방침을 신속하게 변경하여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다. 둘째, 인터넷 정보 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정보 규제의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미국에서 국가가 콘텐츠의 유통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쟁) 논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때 자율규제를 통해 논쟁을 회피하면서 규제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영역에서 표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규제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다(황승흠, 2008). 넷째, 정보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사업자들은 국제적인 차원의 협조가 보다 수월하다. 이에 비하여 공적규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영역 내에서 적용되므로 국제 공조에 있어 시간, 비용, 기술적 제약과 한계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자율규제는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공적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 매체는 규제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적규제와 공동규제 이외에 사업자 자율규제(온라인 영상 및 정보에 대한 자율등급 부여 등), 기술적 규제(앱 혹은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노출되는 음란유해물 차단 기술 등), 부모의 온라인 이용지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은정·김은미(2014), 금융사기 유형과 피해 유형험자의 특성: 중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제2호.
 김학실·심준섭(2019),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제2호.
 김희경(2022),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보고서.
 박아란(2019),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6권제2호.
 박찬경(2022),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언론중재, 2022년 가을호.
 손승우(2016),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제3호.
 송해엽(2021),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필터링의 사회적 합의와 규제된 자율규제, 방송통신연구 2021년 가을호.
 심홍진(2017), 가짜뉴스(Fake News)와 민주주의, KDF 리포트, 제14권.
 아시아 경제(2021. 11.18), 자율규제, 정부규제, 공동규제.
 윤성욱(2018),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제17권1호.
 융합경영리뷰(2023), 사이버금융시대의 범죄 사례와 예방, 2023년 6월.
 융합경영리뷰(2023), SNS·유튜브·AI·오픈AI(챗GPT)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 2023년 7월.
 융합경영리뷰(2023), 딥페이크(Deepfake)-메타버스(Metaverse) 성범죄실태와 대비, 2023년 8월.
 융합경영리뷰(2023), 유튜브·SNS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인격권 관련 판례와 사례, 2023년 9월.
 융합경영리뷰(2023), 온라인에서의 불법 도박 실태와 청소년 보호, 2023년 10월.
 융합경영리뷰(2023), 사이버에서의 음란·성인·유해물 유통과 아동·청소년 보호, 2023년 12월.

이민영(2010),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통권 제115호, 한국법학원.

이향선(2012), 인터넷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공동규제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6권 제4호.

이현정,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제1호(2022).

이희경(2009),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명예보호의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3권제2호.

이혜수·유승호(2009). 정보사회 인터넷 포털의 자율규제-‘블라인드(Blind) 정책’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월호.

임호준(202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표현규제에 관한 절차적 보호장치의 탐색, 언론과 법, 제22권 제1호.

조소영(2019),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 제34호.

조선일보(2023.04.27), 저물어가는 허위의 시대... 美·유럽, 가짜뉴스·불법 콘텐츠와 전쟁.

조연하(2018), 미디어 저작권, 박영사.

충북연구원(2020), 충북 사이버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충북포커스 2020-3호.

황승흥(2008),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황용석·권오성(2017) 가짜뉴스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1호.

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1호.

Park, Aran & Kyu Ho Youm(2019). Fake News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United States & South Korea compared. Sou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5(1)

Price, M. E. & S.G. Verhulst(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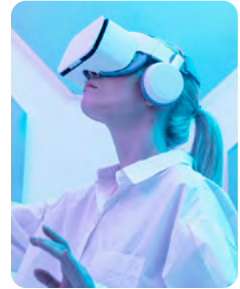
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1호.

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1호.

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1호.

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1호.

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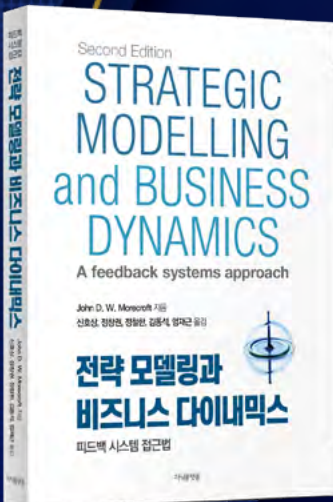


메타 사피엔스 경영학 박사

메타 사피엔스(Meta Sapiens)는 온라인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경험했다.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탐구해왔으며 IT기술과 법제도, 인간의 심리와 욕망을 통합적 시각에서 탐색하는 '사이버 공간의 관찰자'이다. metasapiens11@google.com

전략 모델링과 비즈니스 다이내믹스

★★★ 피드백 시스템 접근법 ★★★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피드백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법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기업, 정치, 군사,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환경,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진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시나리오 모델링은 현상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전략적 사고를 갖게 한다.

저자 John Morecroft는 런던 경영대학원에서 다양한 시스템사고 및 전략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 책이 해당 수업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야의 교과서로 명성이 높은 만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책이다. 영어 원문으로 일부 대학원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 번역본이 나와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공부하고자 하는 국내 독자들에게 쉽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전략 모델링 교재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John D. W. Morecroft 지음 | 신홍상, 정창권, 정철한, 김동석, 엄재근 옮김

기업의 DEI를 이끄는 리더: CDO(Chief Diversity Officer)

이종구

PRADA & GUCCI

2018년에 글로벌 명품 패션 브랜드인 프라다는 검은 얼굴에 빨간 입술을 가진 원숭이 모양의 열쇠고리를 출시했다가 한바탕 여론의 혼썰이 났다. 원숭이를 이용해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파장이 커지면서 유명 연예인들도 나서서 프라다가 흑인 디자이너를 고용할 때까지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고 전 세계적 불매운동으로 확산하였다. 이후 프라다는 공식으로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종과 성별 등의 다양성 전략을 마련하도록 CDO 즉 Chief Diversity Officer로 맬리카 사벨(Malika Savell)을 임명했다¹.



출처: 프라다

한편 또 다른 유명 패션 브랜드인 구찌는 2019년 초에 890달러나 하는 고가의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출시했다가, '블랙 페이스(Black Face)' 즉 흑인 흉내를 내는 흑인 희화 또는 비하 행위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구찌는 곧장 사과 성명을 내고 해당 제품을 모든 매장에서 수거했다. 그리고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 CDO를 임명하고 다문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도 3개월 후에 또 다른 다양성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790 파운드짜리 '헤드피스'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크교도들이 쓰는 터번과 매우 유사해서 '종교 비하' 논란이 된 것이다. 당시에 시크교도 연합회는 "터번은 패션 액세서리가 아니라 성스럽고 종교적인 신앙 물품"이라고 말하면서 구찌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쿿대 높은 구찌는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족 출신인 레네 티라도(Renee Tirado)를 CDO로 임명했다. 그녀는 변호사 출신으로 미국 테니스 협회의 CDO로 일하면서 소수 민족이나 약자 그룹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².

사실 패션계에서 인종 차별의 문제는 꽤 유명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미의 기준이 백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백인들이 패션계를 오랫동안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인종 차별'이나 '종교 비하' 등의 실수를 연발하는 것은 기업 내에 소수 민족이나 소

1 <https://www.impactn.net/news/articleView.html?idxno=668>

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54957>

수 그룹을 대변하고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다양성 책임자' 즉 CDO를 임명하여 기업 내, 외의 다양한 그룹과 민족, 문화를 포용하는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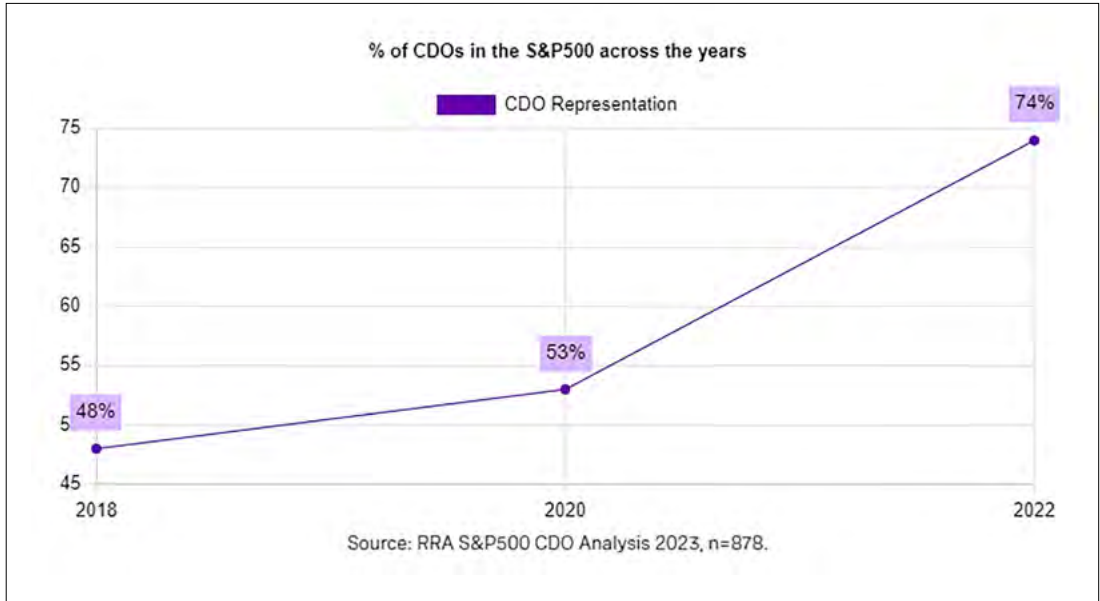
출처: 영국 일간 가디언

CDO(Chief Diversity Officer)의 등장

21세기에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으면서, 기업들은 전례 없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고객은 더 다양하면서 혁신적인 개인화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들의 입맛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기업 내부의 환경은 어떻게? 오늘날의 기업 조직은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MZ 세대까지 여러 세대가 공존한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로 조직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게다가 여성과 인종 문제, 장애인, 성 소수자 등 복잡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잠재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CDO는 이러한 기업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전략과 조화로 풀어 나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기존의 인사나 총무 부서 등 개별 조직에서 담당하기가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 즉 Diversity는 오래전부터 HR이나 Finance, 마케팅처럼 기업경영의 한 주류가 되었다. 이후 D&I(Diversity & Inclusion), 즉 '다양성과 포용'을 지나 DEI(Diversity, Equity & Inclusion), 즉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으로 진화해 왔다. 실제 경영 현장에서도 CDO 즉 'Chief Diversity Officer' 또는 CD(E)&IO, 즉 'Chief Diversity, Equity & Inclusion Officer'라는 고위 임원이 기업의 다양성 전략을 이끌고 있다. 우리의 용어로 해석하자면 '최고 다양성 책임자' 또는 '최고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책임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CDO는 최고 경영진에 속해 있어서, 기업의 전략적인 목표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 체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직책이면서, 사실상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2023년 러셀레이놀드(Russell Reynolds Associate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 중에서, CDO를 보유한 기업이 2018년과 2020년에는 각각 48%와 53%였다. 그런데, 이후에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74%에 이르게 되었다³. 여기에는 사실상 앞의 사례에서 언급했던 패션업계의 사건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20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기업들이 CDO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게 되었다.

3 <https://www.russellreynolds.com/en/insights/reports-surveys/a-global-look-at-the-chief-diversity-officer-landscape>



CDO의 역할

CDO의 역할에 관해서는 많은 다양성 관계자나 학자에 따라 달리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산업이나 지역의 특성, 기업의 조직체계 등에 따라서도 약간씩 상이한 것 같다. 여기서는 필자가 다양성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다⁴.

첫째는 인력 다양성을 모색하는 역할이다. 즉 기업 안에서 다양한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조직 모델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또한 소수민족이나 여성, 장애인 등,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일도, CDO의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인지적인 스타일을,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인지 다양성을 기획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CDO의 역할은 다양성 모델을 기업의 가치사슬과 결합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즉 다양한 고객이나 파트너, 공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전략에 적용하는 역할을 말한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을 강화하고 신시장 개척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세 번째 CDO의 역할은 다양성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역할이다. 즉 소수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의 프라다나 구찌의 사례는 제품의 다양성 문제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오히려 실추시킨 사례가 된다. 네 번째 CDO의 역할은 기업의 다양성 전략이 탑-다운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역할이다. CEO를 비롯한 C-레벨의 임원들과 매니저들이, 먼저 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면서 기업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이다. 다섯 번째 CDO의 역할은 세대 간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설계하는 역할이다. 즉 기업 내 공존하는 이질적인 여러 세대가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DO의 역할은 시장의 문화나 환경

4 "Top Executives In Corporate Diversity", Derek T. Dingle, Black Enterprise, 2018.03
다양성 시대(2019), 이종구, 서울경제경영

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즉 다양성으로 발현된 혁신과 경쟁력이, 고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CDO의 도전

최근 미국 디즈니랜드의 CDO인 래톤드라 뉴튼(Latondra Newton)이 돌연 사표를 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디즈니의 다양성 전략, 즉 성 중립 지향이나 여러 콘텐츠에서 소수 그룹의 캐릭터를 늘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돌연 사임한 이유는 문화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이뿐 아니라 유명 미디어 기업인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의 CDO가 사임하거나 해고되었다고 한다. 한동안 미국에서 CDO는 유행처럼 늘어났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염증을 느끼고, 여러 모양으로 CDO를 공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다소 어이없는 사실 때문이다. 맥주 회사인 버드라이트가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마케팅을 해서 불매운동을 당하거나, 유통업체인 홈디포는 인종 형평성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감사를 중단하라고 주주들이 요구했고, 스타벅스의 주주들은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정책이 오히려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어느 CDO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보상 제도를 평등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자기 몫을 빼앗긴다는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힌다고 하소연한다. 이렇게 회사 내, 외부의 반발이 커지면서 CDO들은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 사임한 어느 CDO는 소셜미디어에 ‘CDO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으며 종종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소감을 남겼다고 한다⁵. 이것은 소위 ‘다양성 피로감(Diversity Fatigue)’이란 말로 종종 회자하고 있다.

결론

그런데도 CDO의 필요성과 역할은 절실하다. CDO는 다양한 직원 개개인의 정체성 문제나, 기업 내 소수 그룹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는 등의 배타적인 이념과도 맞서 싸워야 하고, 때로는 기업의 이익과 상충하는 DEI 정책으로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신자본주의 속에서 DEI 가치를 근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나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멀티 문화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도전과, 그것을 극복하여 성과로 전환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정말로 뉴 노멀 시대의 CDO는 초인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5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10/12/VGDQOBYBDBB3RJ4NY3TMSK5ZIM/>



이 중 구 경영학박사

전자공학도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거쳐 노키아,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에서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다. 이어서 글로벌 IT 기업인 ‘NICE’와 ‘제네시스 코리아’에서 한국 지사장을 역임한 IT 전문가이다. 한편 경영학을 수학하면서 ‘다양성(Diversity)’을 처음 접하고 다양성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아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2015년에 기업 전략서인 『다양성 전략(Diversity Strategy)』을 발간하고 2019년에는 다양성 칼럼집인 『다양성 시대(Diversity Era)』를 발간하면서 다양성 설파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HI-AI & Computing) 산학협력교수로 재직중이다.

넷플릭스의 조직문화를 배우자

김강희



노쇠한 조직은 뭐가 자꾸 많아지고 젊은 조직은 뭐가 자꾸 줄어들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기업은 늙어버리면 몰락합니다. 고객은 트렌드에 뒤처지는 노쇠한 기업을 기막히게 알아보고 외면합니다. 곧 기력을 다할 조직인지 아닌지 판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자꾸 많아집니다. 절차와 계층이 많아지면서 일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면서 신제품을 내놓아도 기민한 기업이

힙쓸고 난 다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서튼 교수는 절차와 계층은 만들기보다 없애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찮은 사업은 왜 하지? 하고 작고 새로운 사업을 무시합니다. 규모를 자랑하는 기존 사업의 관점에서 신사업을 보기 때문이죠. 작은 신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어느 씨앗에서 꽃이 필

지, 어떤 아이디어가 ‘문샷’(moon shot)을 할지 모르는데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가 많아집니다. 노쇠한 조직일수록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게 됩니다. 조율하는 데 과부하가 걸리면서 실행력을 잃게 됩니다.

조직을 노화시키는 것이 사람이듯 조직을 혁신시키는 것도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회사 아이데오(IDEO)의 기업문화 디자이너 폴리 웨스트는 기업문화를 혁신적으로 디자인하려면 일곱 가지 역할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정원사입니다. 바로 창업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정원은 일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창업자는 좋은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양분을 줘야 합니다. 래리 페이지는 구글이 나이 들어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스탠포드 대학원처럼 가꾸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현자(賢者)입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

다. 투자자들은 여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켜본 베테랑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기업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돕습니다. ‘현대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 전략은 기업문화의 아침식사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Culture eats strategy for breakfast.)

셋째, 공감자입니다. 채용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훌륭한 기업문화는 채용에서 시작됩니다. 구직자들의 지원과정 그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채용 담당자들은 직원들에게 채용 과정에서의 최악과 최고의 순간을 물어보고, 이를 토대로 지원자들을 도왔습니다. 지원자들이 미리 준비하면 도움 될 만한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고, 탈락한 사람은 면접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왜 탈락했는지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지원했고, 탈락한 사람들도 다시 준비해서 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재능전문가입니다. HR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출처: <https://jobs.netflix.com/>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복지를 책임집니다. 넷플릭스 HR팀은 파격적으로 휴가에 대해 아무런 사규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인사 정책이 구식이 아닌지 늘 스스로 반문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과장입니다. 사내 교육책임자의 역할입니다. 기업이 대학이라고 하면 교육책임자는 직원들이 학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픽사의 교육책임자였던 랜디 넬슨은 매주 발레, 연극, 드로잉 등의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계속 배워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섯째,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아이디어는 채용 담당자들이 몇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재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고객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회사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외부에 공유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스토리는 기업을 마치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어 줍니다.

일곱째, 질문자입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기업문화는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과정' 그 자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슬랙의 CEO 스투어트 버터필드는 자신이 질문자가 되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녀 직원의 비율이 바람직한가? 여성과 흑인 직원도 백인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이처럼 노쇠한 조직은 뭐가 자꾸 많아지고 신사업을 하찮게 취급하며 급기야 정치가 득세하지만, 젊은 조직은 여러 역할의 사람들이 기업문화를 가꾸면서 늙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늙지 않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스북 COO 셰릴 샌드버그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라며 극찬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자신의

기업문화를 정리한 124쪽짜리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은 「넷플릭스 문화: 자유와 책임」입니다. IBM, 링크드인 등 수많은 기업들이 넷플릭스 기업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최고의 인재가 모여 최고의 성과를 낸다

훌륭한 직장은 커피 머신, 맛있는 점심 메뉴, 고급 사무실이 제공되는 곳이 아니다. 멋진 동료들이 가득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최고가 되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평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고 내보낸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스포츠 팀이기 때문이다. 똑똑하게 고용하고, 승진시키고, 해고 하면서 팀을 정상급 선수들로만 채우도록 한다.

2)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실에 얼마나 오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멋진 일을 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A급의 노력을 해도 B레벨의 성과가 계속되면 퇴직금을 주고 회사를 떠나도록 권한다.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A레벨의 성과를 지속하면 급여를 인상한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빨리, 잘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3) 직원들에게 자유를 허용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의 자유를 줄이고 관료주의가 된다. 사업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혼돈이 발생하고 이 혼돈을 줄이기 위해 규칙과 절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에 집중할수록 훌륭한 직원들은 점점 사라진다. 물론 규칙을 세우고 규칙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이 변화하면

이런 기업은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미 존재하는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만 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업이 복잡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직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자유를 늘려서 창의적인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키워간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갖도록 한다.

4) 쓸데없는 규칙은 없앤다

다른 회사는 비용지출, 출장, 복지혜택 등과 관련해 복잡한 정책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할 때마다 규칙과 절차를 없앤다. 사실 어떤 정책도 필요 없다. 우리는 복장에 관한 규칙이 없지만 아무도 발가벗고 출근하지 않는다.

넷플릭스의 정책은 다섯 단어로 충분하다.

‘넷플릭스에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라.’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2004년까지만 해도 1년에 며칠이라는 휴가일 규정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지적했다.

“우리는 밤이나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이메일을 처리한다. 그런데 주당 근무 시간은 체크하지 않으면서 왜 휴가 시간은 체크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지가 아니라 이뤄낸 결과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휴가 정책을 없앴다. 휴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리더들이 먼저 긴 휴가를 쓰고 돌아와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우수한 사람들은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제보다 맥락을 이용해야 한다. 통제(Control)는 상명하복의 결정, 그리고 허가와 절차 관리를 말한다. 맥락(Context)은 전략과 핵심목표, 역할을 설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우수한 사람들은 맥락을 이해하고 행동할 때 일

을 더 잘한다. 어느 직원이 멍청한 일을 하더라도 그를 비난하지 마라. 대신 그 사람에게 어떤 맥락이 전달되지 못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처럼 넷플릭스는 회사가 커질수록 많은 것을 줄이면서 더 좋은 인재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노쇠한 조직은 뭐가 자꾸 많아지지만 젊은 조직은 뭐가 자꾸 줄어들습니다.



김강희 경영학박사
 현)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경영혁신팀 수석부장
 한국인공지능협회 전문위원
 Master Black Belt
 IPS산업정책연구원 산업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문위원
 전)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우수 의약품 품질 고도화(QbD)를
 모든 제약사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국내 최초 지침서!!!**



김강희 지음

자폐성장아인과 함께하는 삶

강은희



야구 이야기

모든 스포츠는 선수와 관객이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행위예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투수와 포수를 주축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은 선수들이나 관객들을 야구 경기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관중은 선수들의 경기력의 어떠한에 열광하기도 아유를 보내기도 한다. 원활한 경기는

투수가 포수와 사인을 맞출 때 이뤄지며, 둘 사이의 사인이 맞지 않을 때는 투수의 어떠한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투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포수와 사인이 맞지 않는 투수로 인해 경기의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오롯이 포수의 어려움이 되지는 않는다. 자폐성장아인과 함께하는 삶은 쉽게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야구 경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자폐 성장아 당사자를 투수로, 그들을 둘러싼 가족이나 지원인력 구성원을 포수라고 가정해보자. 대부분 투수의

어떠함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포수와 사인이 맞지 않는 투수로 인해 경기의 어려움은 발생하고 그것은 오롯이 포수의 어려움이 된다.

자폐성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은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어떠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자폐성장애인의 주요한 행동특성인 disorder(지시거부)로 인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오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폐성장애 당사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자폐성장애 당사자들과 그 주변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갈등으로 인한 힘겨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쉽게 만나게 된다. 장애인 복지 현장을 들여다보면 자폐성장애 당사자들은 그 갈등상황을 즐기고 있는 반면, 그들을 둘러싼 인적 구성원들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

이러한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어떠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시스템과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도전적 행동이라고 명명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현행 한국의 교육과 재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미비한 개입실천은 그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12년의 의무교육을 받고 성인기를 맞이한 자폐성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은 상윤이 사건¹에서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더라도 이내 당사자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거나 사회의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자폐성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과 치료 및 재활 서비스로는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능 향상 개입에 대한 연구(강은희, 2022)를 수행하면서 당사자의 장애 특성의 어떠한에 집중하였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폐성장애 아동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휴먼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폐성장애 아동이 보이는 어려움보다 주변 지원인들의 상식적인 대응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반복적으

1 상윤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으로 발달장애인의 치료·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다. 상윤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발달장애 1급의 10대가 복지관 3층에서 우연히 만난 2살 아기를 1층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7분경 부산 사하구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이모 군(19)이 A(2)군을 건물 밖 10m 아래 바닥으로 던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진 A군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5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치료 중인 큰아들(6)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군은 잠시 소홀한 사이 복도에서 놀던 A군을 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뒤늦게 A군의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가는 이 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불상사를 되돌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달장애 1급인 이 군은 이날 재활치료를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복지관을 찾았으며, 사건 당시에는 활동보조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군이 복도에서 A군을 데리고 가는 CCTV 화면과 '평소 이군이 물건 등을 던지는 버릇이 있었다.'는 이 군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 군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신아일보=부산/김삼태 기자, 2014. 12. 04]." 이 사건의 가해자인 이 군은 결과적으로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로 인정되어 살인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로 하면서 저들의 비상식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상식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 느끼는 우리들의 불안감이 자폐성장애 당사자를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자폐성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어려움에 집중해야 한다.

자폐성장애인의 바른 이해

필자는 장애 특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교사로서의 경험과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을 통해 체득한 사회복지적인 가치와 지식, 방법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능 향상의 개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융합한 임상적 개입실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구 참여자인 자폐성장애 아동의 일상생활 전반에 개입하면서 육하원칙에 의한 일상생활 관련 질문과 답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폐성장애 아동의 행동특성에 주목하였다. 비록 한 아동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한계는 있으나, 5년 동안 반복되는 일상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인식 전환도 경험하였다.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지금 눈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폐성장애 아동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자폐성장애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아동의 제한적인 관심에 따른 활동에서 기인하며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따라서 자폐성장애 아동이 보이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고 이것은 의사소통과 사회

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자폐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자폐성장애인들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다.

Golden-Time

필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폐성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개입하면서 다양한 양상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다. 처음 이 아동을 만났을 때는 아동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어서 많이 고심하였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단순한 질문하기를 반복하면서 이 아동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따라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렸다.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이 아동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 아동의 희망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동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교육적 성취를 이뤄내도록 조력할 수 있었다. 자폐성장애 당사자들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이 아동과의 성공 경험을 통해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의 Golden-Time(최적의 시간-의학용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약에 이 아동의 나이가 7세보다 더 적었거나 많았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매시간의 생생한 대화를 기록으로 남겼고 이 기록을 분석한 경험은 자폐성장애인에 대해서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과 같이 명료해지면서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즐겁게 살도록

자폐성장애 아동에 대한 바른 이해의 경험은 다양한 연령층의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유용하였다. 그것은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자폐성장애와 그런 현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데 유익하였다. 따라서 자폐성장애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자녀의 자폐성장애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즐겁게 살게 하는 데 유익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의 과정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필자의 실천개입 현장의 당연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폐성장애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자폐성장애인의 되풀이되는 일상 이야기는 그들의 문화를 드러내며, 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능(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 준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

가 된다.

셋째,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의 선행조건이다.

넷째,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자폐성장애인 복지실천 개입의 재구조화 논의가 시급하다.

결국 필자는 자폐성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강 은 희 사회복지학 박사
호호알멘토 원장

강은희 사회성발달연구소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이사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장
경기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자문위원
한독교육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의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매슬로 욕구단계이론 관점-

이영기



1. 노인사회의 명암

통계청은 최근 발표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수가 549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 가구수의 25.1%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주변에서 4집당 1가구는 노인이 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포함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를 포함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중 65세 이상으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은 36.4%에 이르고, 노인부부나 나이 많은 형제자

매 등 1세대 친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36.2%로 노인들로 구성된 세대는 2/3를 넘는다. 반면 자식 세대와 함께 사는 가구는 고작 23%에 그치고, 손주까지 3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은 3.4%도 안 되어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노인 가구는 향후에도 급격히 늘어나서 2039년에 1,000만 가구를 돌파하고, 불과 한 세대 후인 2050년에는 49.8%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니 이제는 동네에서 아이 구경하기보다는 노인들이 양지바른 곳에 몰려

얕은 모습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어디를 가나 한 집 건너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는 가구가 되면서, 다가올 한국사회의 주역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65세가 기준점이 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에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개시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예방접종, 철도나 국·공립공원 등의 경로우대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여러 기록에서는 1889년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퇴직군인들의 연금수급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부양받는 세대로서 노인의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는 135년 전의 평균 수명을 감안한 기준으로, 오늘날 대폭 늘어난 평균수명과 산업활동에 비추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노인연령'을 기대여명이 15년이 되는 시점으로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WHO). 2022년 세계인구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기대여명을 반영한 노인의 기준이 73세가 된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적 노인연령은 65세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는 73세라는 뜻이 된다(한국노년학연구).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 명으로 총인구 5,174만 명 대비 18.4%를 차지하고 있다. 향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라는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치로 잘못 인용하고 있으나 어느 개인의 사견일 뿐 UN의 공식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한다(백세시대, 최성재 교수).

분명한 것은 노인 인구는 계속 급격히 늘어나서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급격히 늘어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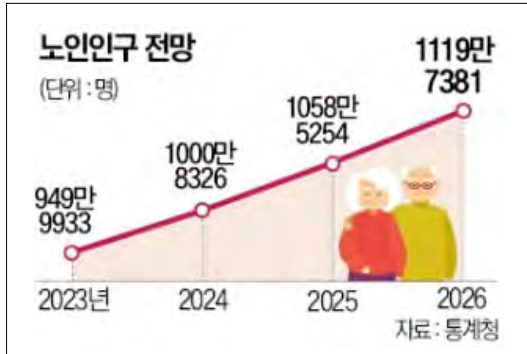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망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벽 이래로 출생이 가장 왕성하였던 6·25 전후세대들이 빠르게 노령화하는 것도 한몫한다. 2023년에 65세를 맞은 1958년생들이 경로혜택 수혜자로 포함되는 것을 필두로, 향후 10년간 매년 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65세 노인인구에 포함되면서 향후 노령 인구층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적 비용 부담 또한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필요한 재원을 주로 14~65세 생산인구들의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의존하다 보니,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불 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중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 인구비중은 26.1명이지만 2035년에는 48.6명으로 급증하고 현재 추세라면 2050년에는 78.6명이 되어서, 노인 부양에 따른 재정 부담이 성장에 큰 장애요소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 노후는 건강한가?

그러면 이런 사회적 지원을 받는 노인 세대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들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개인인가, 가족인가, 지역사회인가? 무거운 질문에 답이 궁하다. 물론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어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지만 당장 재정적 한계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요인으로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미국(22.8%), 일본(20.0%)의 2배에 가까우며, 북유럽 복지국가들 4%대와는 비교조차 안 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면서 복지비용 부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당장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아동 육아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자체들이었건만, 실버 세대를 위한 정책 토론이 잦아지고 어르신 돌보기 등 홍보성 사진들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한다. 한해 고작 25만 명도 안 되는 출생아보다 매년 80만 명씩 늘어나는 노인세대에 대한 표심 공략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인사회를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은 노인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가, 가족의 몫인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기초연금



을 비롯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적 보험과 부조가 중요한 축을 이룬다.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 혜택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지하철 무료이용 혜택은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하철의 재정적자 확산에 대한 불협화음도 심해지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 문화가 확산될수록 보건 의료체제는 점점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지만, 역으로 노인들이 겪는 퇴행성 질환 비용부담은 노인인구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노령화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쇠퇴와 면역력 결핍으로 각종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바로 고쳐지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증상 악화 시간을 좀 벌여볼 뿐 근본적으로 되돌리진 못한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이고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주요 병원 의원들은 노인 고객들로 아침부터 오후 내내 북작거린다. 이러한 의료쇼핑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과 중 신속히 치료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아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병·의원 긴급 출세기 알바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거래될지도 모른다. 대부분 동네나 부도심권의 안과를 비롯한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에서 흔히 보게 되는 모습이다. 이들 노인들의 공통 관심사는 바로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욕구이다.

3. 건강한 노후 준비

사회복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 간의 이격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홀로 지내거나 불편한 몸으로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간다. 자식 세대는 내리사랑에 익숙해 있어 자기 자식들 돌보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부모 세대는 마음뿐이다. 홀로 계시는 부모가 걱정되어 양질의 서비스라고 소문난 부양시설에 모시고 형제 간의 비용 분담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늘어가기 시작한다. 의료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믿을 만하고 무엇보다 24시간 안심할 수 있고 생활서비스 질이 좋아 보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통이 편리하여 자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한몫한다. 이미 접근성이 좋은 일부 시설은 인기를 끌면서 재산가치도 오르니 바람직한 투자처로 소문이 나기도 한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노후 쉼터는 새로운 효도 풍속도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이것은 매슬로우 욕구단계에서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가족의 사랑과 관계성이 잘 유지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으면, 바쁜 자식세대와 여유로운 노후 부모세대와의 좋은 교감을 이루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간혹 신문에 보듯이 생전 연락이 없던 가족이 부모 유고 후 유산 분배로 이권 다툼을 하거나 형제 간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오르내린다. 먹고살기 바빠서 그동안 부모를 돌보아드리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드렸지만 늘 마음에 있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다. 그렇게 바쁘게도 굳이 재산 상속 문제 시점에 나타나는 이유는 알지만 서로 묻지 않는다. 누구나 다 마음은 있으나 현실은 멀기 때문이라고 수긍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돈 때문에 부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뉴스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전율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실적으로 돈이나, 부모 부양이나를 놓고 저울질하면 저울의 추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가는 양상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누워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 그 고통을 덜어드릴 마땅한 방법은 없으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병원비로 효심은 무너진다. 갑자기 중증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직장이나 생업이 위협받게 되고 월 400만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간병인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 어느 70대 노인이 90이 넘으신 고령의 노모를 모시다가 힘에 부쳐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하나같이 할머니 모시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급기야 노모를 강제로 돌아가시게 한 사건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1994. 9. 남해안).

그래서 노인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는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각자도생하는 생존방식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어렸을 적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한창

생산 시기에는 산업화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면서도 자식들 교육시키고 출가시키느라 허리가 휘었다. 그러나 이제 핵가족화와 혼족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대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자식들과 공감대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불편해지면서 각자 따로 살아가는 방식에 내몰리기 시작한다. 대가족 제도에서는 나이와 촌수에 따른 서열이 분명해 자연적으로 존중을 받아왔지만, 이제 각자도생하면서 그런 존중도 퇴색하고 영향력의 기준은 금전력으로 바뀌어 간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서도 선불리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유이다.

4. 매슬로 욕구 5단계 (Maslow's Hierarchy of Needs)

본고에서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을 기준으로 노인사회가 겪는 문제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 1908~1970)는 당시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결정론적 관점으로 행동을 분석하던 정신분석학계의 접근과 달리, 건강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측면과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탐구하였다. 매슬로는 인간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며 다중의 독립적인 욕구에 의하여 동기화된다고 하면서 욕구위계 이론을 제시하였다(Maslow, 1987). 즉 모든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 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자기실현 욕구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는 우선순위가 있는 계층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욕구위계이론은 성격, 사회, 발달, 상담 등의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 '생리적 욕구'란 호흡, 물, 음식과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요인과 성적 욕구 등 본



능적인 욕구들을 포함한다. 이밖에 배설 등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의미하며 이것이 충족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안전 욕구'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안전의 욕구에는 육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전도 포함된다. 즉 가정과 직업 및 재정적 안전,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혼란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욕구위계이론은 자연재해, 가정 폭력을 포함한 온갖 폭력,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나 머물 곳이 없는 무의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고 구호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안전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더 높은 욕구인 사회적 수준의 문제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Harper., 2003).

매슬로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가족이나 친구, 연인,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소속감과 친밀감 및 애정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면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수반하는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다(Arditte, Morabito, Shaw, & Timpano, 2016). 반대로

이러한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된다면 단순히 소속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타인으로부터 수용되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중 욕구를 추구한다고 하였다(Maslow, 1943).

존중에는 지위나 명성,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외적인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에 의하여 형성되는 내적인 존중이 있다. 이러한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이 적절하게 충족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기실현 욕구를 실현한다고 하였다.

매슬로는 일반적으로 욕구 1, 2, 3, 4단계인 '생리적', '안전', '소속감', '존중'의 욕구는 부족하면 채우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지만 5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욕구가 생긴다고 보았다.

(1) 생리적 욕구

이러한 매슬로 욕구 5단계를 기준으로 노인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를 다시 점검해보자.

우선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숨쉬기, 물과 음식 섭취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기본조건이 충족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질 좋은 건강식을 찾게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과 공기를 찾게 된다. 여기에 적절하고 쾌적한 수면과 배설은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수명을 보장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런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큰 틀에서 이런 1단계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도록 정책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 중에는 몸이 불편하여 외부 활동을 거의 못 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찾아가는

급식 서비스나 정기적인 가사 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1단계 욕구가 충족되어도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몸과 정신의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관 등 지역사회 센터에서 걷기 등 생활 체육을 권장하고 각종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여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이고 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Tech Café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어느 화장실에 붙어 있는 캘리그래피가 눈길을 끈다. 맞는 말이다. 걱정을 한다고 상황이 개선되거나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자세가 걱정을 덜어줄 것이다. 마음의 짐을 덜고 스트레스가 적어지면 몸의 기능도 그에 따라서 부담을 덜고 활력을 찾을 것이다.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새 흐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안전의 욕구

이런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찾게 된다고 한다. 즉 자신의 안전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안전을 중요시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 환경,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환경, 각종 모임 또는 학연, 지연, 혈연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연결망 또한 안전을 지지해준다. 그래도 개인 간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간의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이나 사

회적 공권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 간, 집단 간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 상호협조 배려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최후로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화보다는 자기주장이 급하게 앞서면서 어떻게든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불필요한 과욕과 폭력이 선부르게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 어느 지방에 지역사회의 편의를 위해서 법원을 설치해주었더니 그때부터 각종 송사가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대화보다는 남의 힘을 빌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권리를 찾고자 하는 과욕이 넘쳐난다. 바쁘게 달리던 차가 교통정체를 맞으면 대부분 짜증이 나면서 원인을 찾는다. 막힐 시간이 아닌데, 하며 두리번거리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도로 중앙에 멈춰 있는 차를 보게 된다. 범퍼는 부딪치라고 있는 것이지만 가벼운 손상에 대해서 무조건 보험회사를 부르고 견인차를 부른다. 웃음이 난다.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상은 상호 이해와 배려가 없으면 과학기술도 무용지물임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Peak Dynamics

나를 가장 지지해주는 환경은 가족이다. 그 어떤 외부 단체나 환경보다 가족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던 가족이 삶의 기준이 바뀌면서 그 위협을 받고 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고통의 분담보다는 개인 이해가 앞서기 시작하고 가족이라는 무형의 고귀한 가치는 당장 눈앞에 흔들거리는 돈의 의혹에 뒤로 밀리고 만다. 따라서 노인이 될수록 가족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애정과 배려와 이해를 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바꿀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내리사랑으로 베풀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마치 물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동식물을 살려내고 풍요롭게 해주지만 대가를 바라거나 심지어 되돌아와서 따지지 않는 것과 같다. 무작정 무한정 베풀어야만 한다. 쉽지 않지만 그래야 한다고 자연은 가르친다.

(3) 소속감 욕구

사회적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는 소속감 욕구를 찾게 된다. 가족 공동체나 각종 모임으로 이뤄진 사회적 공동체에 뜻을 두고 열심히 참여하면서 애정을 쏟는 이유다. 모임을 마치면 뭔가 해낸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임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속감은 오래 남는다. 모임별로 공통의 대화 주제가 마련되고 공감하며 소통이 수월해진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마련이다 모임 전후반에 1/N로 분담하는 회비가 물가 인상을 앞지르지만 대부분 기쁘게 참여한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따지지도 않는다. 혼자 가면 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즐길 수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돈이 더 들기 마련이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각종 안주와 술병, 음료수병이 너절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모두가 즐거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1회성 소모성으로 만나서 즐기고 그 기억만 갖고 돌아가는 모임은 서서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공통의 가치 기준이 점점 바뀌기 때문이다.

사실 노인이 되면 사회활동 참여 기회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모임 안내조차 뜸해지고 외톨이가 되고 만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관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눈치도 없이 꼬박꼬박 참여한다고 뒷얘기가 나올지라도 가급적 참여하자. 사회와 많이 소통할수록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나 특강 모임은 기회가 닿는 대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시간적 여유가 되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참여

해서 듣고 배우자. 자주 배움의 기회를 가질수록,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의 연령은 젊어지지 않겠는가? 더불어 그 모임의 소속감과 유대감은 참여할수록 높아질 것이니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다.



LinkedIn

(4) 존중의 욕구

매슬로우에 따르면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그 다음 상위 욕구인 존중의 욕구가 생긴다고 한다. 소속된 모임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인생에 남을 만한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각종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에 눈길이 가고,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 등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찾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모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반기지 않으면 슬그머니 그 모임을 떠나게 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의 여러 가지 과거 경력이나 누구의 평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인정받는 느낌은 그야말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이유를 끄덕이게 만든다. 사실 존중이라는 것은 누구나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지만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처럼 먼저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겠는가?

존중과 존경은 다르다. 존경받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에 대한 존재를 인정받는 것 그것이

곧 존중이다. 누구나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니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존중은 다양한 취미생활, 공감과 지지를 받을 만한 건전한 주장,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는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본다. 글을 한 줄 쓰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처세를 유지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속으로 들어찬 경험 지식이 많아지면서 자기 오만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하찮은 일에도 타인과 다투며 인성을 높이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분노조절 장애가 찾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이 목소리를 높이게 한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젠 나이가 드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고성을 지르니 듣는 사람은 더욱 싫어지고 존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귀는 커져야 되고 입은 미소로 대신하면 좋을 것이다. 노화현상으로 안타깝게도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상대가 열심히 설명한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자연 자기 생각과 틀리면 불편하고 심기가 틀어지면 화가 난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 부아가 치밀어서 역정을 내고 만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옛날 기억에 묻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해봐야 안 통한다. 확연히 바뀌어버린 가치관, 세계관 등이 과거에 연연하는 노인들의 태도는 장애물이 된다. 뭐가 자꾸 걸라고 불편하니까 짜증이 잦

아진다.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고 내가 먼저 바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존중의 욕구를 채우게 될 것이다.

(5) 자아실현의 욕구

4단계까지 안정이 되면, 이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에 도전하게 된다. 자신이 존중받으면 그 힘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책을 저술하고 강연에 초대받게 된다. 모임에서 대우받으며 좌석을 안내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공감대를 표시해준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살아있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은 자신감이 되고 자아실현하는 만족감은 건강과 정신적 강인함으로 더욱 긍정적으로 상향되면서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평생 해온 분야에 더욱 매진해서 자신의 이름과 논조를 더욱 견지해도 좋다. 많은 선각자들과 존경받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다. 또한 은퇴 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을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새로이 디지털 그림에 매료되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전자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고 전자 키보드를 연습해서 그동안 듣기만 하던 애창곡이나 주옥같은 음악을 스스로 연주해보는 즐거움에 빠지기도 한다. 어떤 이는 자연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풀어보겠다고 주역에 심취하기도 하고, 고전 문학이나 고전 학문에 몰입하기도 한다. 평생 닦은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시각으로 고전을 해석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한다. 동호인들끼리 전시회나 발표회를 갖게 되고 자선공연이나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게 된다. 이

런 것이 일상의 리듬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인의 삶은 점점 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행복감이 찾아온다.

매슬로의 욕구를 5단계가 충족되는 삶은 결과적으로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한 단계씩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모든 과정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배움, 즉 평생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당면한 노인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 평생교육이 노인들의 욕구에 맞춰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로 우수한 산업 전사를 키우고 세계 최고의 지식사회를 만들었듯이, 이제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세대를 겨냥해서 새로운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또 다른 지식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사회에 발전의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안내: M+V=P Biz Academy, 캠퍼스 케이에서 베트남 진출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s://blog.naver.com/josephyglee1" 또는 인터넷창에 "이영기.블로그.한국" 입력



이영기

국립경제대학교 (NEU) 방문 교수
공유오피스 Campus-K 공동 창업
FPT School of Business, 객원 교수
josephyglee@gmail.com | kakao: josephyglee

세계일주기행: 스페인 여행기2

이규형



FRS Ferry-Spain Tarifa 항

아프리카를 떠나며

모로코를 떠나 다시 스페인으로 되돌아간다. 바르셀로나를 출발하여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에 온 지 6일 만의 귀환(?)이다. 세계일주 항공티켓의 조건상 다음 여행지로 가려면 도착지 공항에서 출발해야 여정을 이어 갈 수 있다. 모로코는 별도의 지역 항공을 이용한 스케줄이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기 전에 지

브롤터와 스페인 남부지방의 유서 깊은 도시인 룬다(Ronda), 말라가(Malaga), 그라나다(Granada)를 거쳐갈 예정이다.

오늘 일정은 탕헤르를 출발하여 스페인 알헤시라스를 거쳐 영국령 지브롤터로 간다. 지중해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뱃길 중 하나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는 탕헤르-타리파(Tarifa) 노선이다. 모로코 북동부에 위치한 세우타(Ceuta)에서 스페인의 알

헤시라스(Algeciras)로 가는 페리 노선도 있다. 세우타는 스페인이 지중해 건너 모로코 땅 북동부에 갖고 있는 조그만 고립 영토다. 영국이 스페인 땅에 붙은 지브롤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세우타와 지브롤터가 마주 보고 있어 묘한 대립을 이룬다. 세우타에서 탕헤르까지 차로 한 시간 반쯤 떨어져 있다.

모로코에서 세비아(Seville)나 말라가 등 스페인의 서남부 도시로 갈 계획이라면 지중해 바닷길을 이용해 볼 만하다. 역으로 스페인 남부에서 모로코로 여행할 때도 지중해 페리를 이용하면 색다른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다.



FRS Ferry를 타고 스페인 타리파항으로

아직 도시가 깨어나기 전인 새벽 5시 반부터 서둘렀다. 여행은 늘 여유 있게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탕헤르항(Port de Tanger)에 도착하니 6시다. 전날 확인해보니 티켓에 여유가 있어서 예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편도 배삐가 43유로(약 60,200원). 배표를 사고 승선을 위해 출국 여권 심사를 마쳤다. 수속과 탑승을 마치고 7시가 되니 정시 출발이다. 한 시간 후면 스페인에 도착할 것이다. 하얀 선체에 빨간색 띠를 두른 페리(FRS Ferry)가 탕헤르항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간다.

지중해에서 바라보는 아침 하늘은 회색빛이다. 날이 흐리다. 구름이 하늘을 반쯤 가렸지만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곳 아프리카와 바다 건너 유럽을 오갔을 것이다. 오늘처럼 잔잔한 바다라면 뗏목에 노를 저어 가도 좋을 듯한 날씨가. 탕헤르가 고향인 이븐 바투타(Ibn Battuta, 중세 여행가)도 이 뗏길을 건너서 이베리아의 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했을 것이다.

잠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뱃머리 왼편에 타리파항이 보인다. 타리파항에서 인근 큰 도시인 알헤시라스까지는 육로로 40분쯤 가야 한다. 알헤시라스에서 렌터카를 빌려 지브롤터에 갈 예정이다.

2022.09.19, Mon.

지중해의 목젓 지브롤터(Gibraltar, UK)

지브롤터는 426미터의 돌산이 솟아 있는 땅으로 지중해를 향해 돌출된 반도 지형이다. 크기는 6.8km²로 여의도 면적의 두 배다. 북쪽으로 스페인과 접점을 이룬다. 서쪽의 완만한 지형에 지브롤터 시가지와 항구가 위치한다.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를 마주하는 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반도는 남북으로 발달하여 지중해로 뻗어있고 중간에 높은 돌산이 솟아 지중해를 드나드는 선박을 관측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 참 절묘한 위치에 절묘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군사전략적으로 요충지는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브롤터의 전략적 가치는 흑해를 출발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수에즈를 이용하는 해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브롤터를 보며 마치 음식과 공기를 가려서 넘기는 목젓과 같이 지중해의 목젓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국이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에 참여하여 최초로 이곳을 점령한 때가 1704년이다. 스페인이 내분으로 힘을 쓰지 못하던 1713년부터 영국령이 되었으니 300



지브롤터 바위 절벽 지중해 방향

년이 넘었다. 대단히 긴 안목을 가진 영국인들이다. 그들 조상은 오래전에 세상을 보는 눈이 깨어 있었다.

1805년 트라팔가르해전이 일어난 곳이 지브롤터에서 멀지 않은 스페인 서남부 앞바다이다. 이 해전에서 저격수의 총에 맞은 넬슨 제독이 지브롤터로 후송되었다가 영국으로 보내진다. 넬슨을 기념하는 작은 동상이 지브롤터 시내에 서 있다.

프랑코 시절의 스페인이 지브롤터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스페인도 아프리카 모로코의 세우타를 점령하고 있는 처지에서 지브롤터 반환 요구는 세우타 반환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지브롤터를 보며 세상은 국력과 자국의 이익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지브롤터 국제공항

지브롤터에는 특이한 공항이 있다. 지브롤터 반도의 북쪽과 스페인의 국경이 접하는 곳에 국경선과 같

은 방향으로 비행기 활주로가 달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군용으로 건설된 비행장이지만 지금은 국제공항으로 바뀌어 제트여객기가 하루에 몇 차례 운항한다. 지브롤터 반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하루에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지브롤터를 드나드는 차량과 도보 여행객에게 활주로가 개방된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통행을 막는다. 철도 건널목을 지나는 느낌이다. 활주로에 가까이 서서 육중한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채롭다.

지브롤터에서 참배한 여왕의 장례식

지브롤터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지만 걸어서 시가지를 탐험하기에 좋을 크기다. 서쪽 바닷가 잔교(Pier)에는 하얀 요트가 평화롭게 줄지어 정박해 있다. 스페인에 붙어 있지만 영국령답게 지브롤터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지브롤터의 영주 인구는 3만 5,000명

좁 된다. 국경 검문소에는 스페인 지역에서 지브롤터로 일하기 위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오늘(2022년 9월 19일 월요일)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으로 임시 공휴다. 상점은 대부분 문을 닫고 관광객을 상대하는 기념품 가게나 식당들만 문을 연 상태다. 중심 광장에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중계 중이고, 시민들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엄숙하게 장례식에 동참하고 있다.

여왕은 9월 8일에 94세로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달 런던에 여행했을 때 영국 왕으로서 최초로 즉위 70주년인 플래티넘 주빌리(Platinum Jubilee)를 맞이한 여왕을 축하하고 있었다. 버킹검궁 주변에 걸렸던 축하 현수막과 포스터가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 지브롤터에 와서 여왕의 장례식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스페인 남부 도시들

알헤시라스에서 론다로

알헤시라스에서 론다까지 기차(Rente)로 2시간 가량 걸린다. 기차 티켓값은 13.5유로(약 2만 원)다. 중간에 1~2군데를 정차하며 스페인 남부의 평원을 달린다. 점심 때쯤 되니 론다에 도착했다.

론다(Ronda)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작은 도시다. 인구는 3만 6,000여 명, 면적은 481km²로 평택시만 하다. 론다는 군사적으로 우수한 고원에 위치할 뿐 아니라, 요새로 적당한 지형이다. 기원전 3세기에 로마의 장수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막기 위해 론다를 요새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스키피오의 결정은 군사전문가가 아니라도 론다를 보는 순간 이해가 된다. 론다의 남쪽과 북동쪽은 절벽을 이루고, 절벽 아래는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다. 방어와 공격에 천혜의 조건이다. 론다의 남쪽 전망대에 서면 아득하게 펼쳐진 안달루시아 지방의 평원이 너무나 아름답다.

헤밍웨이가 사랑한 도시, 론다

론다는 헤밍웨이가 사랑한 도시로 유명하다. 헤밍웨이는 스페인 내전 막바지인 1937~1939년에 미국 신문의 종군기자로 스페인 내전을 취재했다. 내전 당시 론다는 좌파 인민전선 정부와 프랑코의 반란군파가 서로 점령하기 위해 싸운 역사의 현장이었다.

론다에 매력을 느낀 헤밍웨이는 그곳에서 그의 대표작인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1940년)를 구상했다고 전해진다.

론다는 1943년에 개봉된 동명의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배경이자 촬영지이다.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을 맡아 당대의 명작으로 기록된 작품이다. 론다를 걷다 보면 영화의 장면이 겹치며 무모하고도 순수한 젊은 날의 사랑을 떠올리게 된다.



영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한 장면

영화의 배경은 스페인 내전이지만, 그 안에서 꽃핀 순결한 사랑과 애절함이 영화의 기억을 강렬하게 지배한다. 전장에서 만난 로베르트(게리 쿠퍼)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마리아(잉그리드 버그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 때문에 일부러 마리아와 거리를 두려는 로베르트. 마리아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당신 뒤편까지 사랑할 테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마리아의 사랑 고백은 순수한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격동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슴이 뛰고 설레는 가운데 서툴게 첫 키스를 하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잇는다.

“키스할 줄 모르지만 키스하고 싶어요. 그런데 코를 어떻게 해야 하지요?”

I do not know how to kiss, or I would kiss you. Where do the noses go?

영화 팬들을 살짝 미소 짓게 하고 가슴 찡하게 만든 이 말은 눈물이 가득 고인 마리아의 슬프고도 청순한 눈빛과 함께 영원히 기억된다.

소설의 제목은 영국의 시인 존 던(John Donne)의 시구를 인용한 것으로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를 묻는다. 남의 나라의 내전에 참전하여 전장에서 죽는 소설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무슨 명분으로 죽는지를 묻고 있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위축시킨다. 나는 인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 하지 마라.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해 울리니...”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 John Donne, 1624

푸엔테 누에보

론다는 18세기 이전의 마을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높낮이가 다른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옛 돌집, 우물, 작은 성당, 계곡 위에 놓인 다리, 절벽을 따라 계단식 지형에 지어진 아기자기한 집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걸음의 피곤함을 잊게 만든다. 론다 읍내의 아름다운 풍

경을 따라가다 보면 누에보 다리에 이른다.

누에보 다리(Puente Nuevo, 푸엔테 누에보=새로 놓은 다리)는 론다의 압권이다. 오늘날 론다는 푸엔테 누에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론다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 푸엔테 누에보다. 30년 넘게 공사하여 1793년에 완성된 누에보 다리는 인간의 지혜와 피땀이 이룩한 결정체다. 돌을 다듬어 쌓은 심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공사하기 어려운 120미터 높이의 좁은 협곡에서 공학적 장엄함까지 갖춘 걸작을 저 시대에 완성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 시기 세상에서는 세계사적 사건들이 벌어졌다. 1793년에 프랑스에서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공화정의 출범에 고무되어 혁명이 일어났고, 루브르 박물관이 대중에게 개관된다. 조선은 다른 세계와 담을 쌓고 살던 정조 때의 일이다.

론다는 구시가지(La Ciudad)와 신시가지(Mercadillo) 사이에 과다레빈강을 따라 형성된 협곡으로 두



해 질 녘, 누에보 다리를 바라보는 여행객

시가지가 나뉜 지형이다. 길이 66미터에 높이 98미터 규모의 누에보 다리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론다의 신·구시가지지를 잇는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누에보 다리의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과 인공이 주는 감동으로 숙연함마저 든다. 푸엔테 누에보의 숨 막히는 경이로움은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

오늘도 260년 전에 잘 놓은 다리 하나가 론다의 주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투우의 발상지, 론다



론다 투우장

스페인에서 딱 한군데 투우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곳이 론다이다. 론다는 투우(Toros)가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한다. 1784년에 건설된 론다 투우장(Plaza de Toros de Ronda)은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로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는 동물보호론자들의 등쌀에 스페인 전역에서 투우가 사라졌다. 다만 투우 문화의 명맥을 잇는 차원으로 일 년에 단 하루만 론다에서 투우가 열린다고 한다.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투우 경기를 한다고 하니 투우를 보고 싶다면 이때를 맞춰 여행하면 좋을 것이다. 투우관람 티켓을 예약하는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고, 예약사이트는 8월에 열린다고 한다.

투우 티켓 예약 사이트: riveraordonez.com

투우와 스테이크, 그리고 UFC

스페인은 한때 투우의 나라로 불리었다.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투우사의 모습은 시민들의 아이돌이었고 스페인의 상징이자 문화였다. 오늘날 동물애호가들의 반대로 이제 더 이상 투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핏물이 똑똑 떨어지는 레어로 익힌 소고기 스테이크를 길거리 야외 테이블 위에 버젓이 올려놓고 즐긴다. 무엇이 동물애호인지 헷갈린다. 동물보호를 명분으로 투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2002년에 마드리드에 출장을 갔을 때 주말에 열린 투우 경기를 본 적이 있다. 투우는 일정한 규칙과 법도가 있다. 경기 절차에 따라 경건하다 할 정도로 엄숙하게 진행되는 인간과 동물의 제전이였다. 오늘날 경기의 규칙을 만들어놓고 싸우게 하는 권투나 레슬링과 비교하여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잔인하고 폭력적이기는 UFC 경기가 더하지 않을까.

2022년 9월 24일

태양의 해변도시 말라가로 출발

버스를 타고 말라가로 향했다. 론다를 출발한 버스는 한 시간 반쯤 걸려 말라가에 도착했다. 말라가는 지중해변의 도시다. 대기는 맑고 태양은 찬란하다.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도시가 펼쳐져 있다. 코스타 델 솔(Costa del Sol, 태양의 해변)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이유다.

말라가는 사람 살기에 참 쾌적한 도시라는 느낌이다. 인도가 차도보다 넓은 도시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말라가 시내를 관통하는 중심도로의 인도는 편도 3차선의 차도보다 넓다. 차도가 양옆의 넓은 인도 사이에 좁게 나 있는 형국이다. 걷기 좋은 경쾌한 도시다.

말라가 시내의 중심 상가 지역은 베이지색 대리석 보도가 깔려서 밝고 화려하지만, 4~5층의 낮은 건물이 위압적이지 않아 친근하다. 건물 사이사이 옛 정취



말라가 중심상가 거리

를 간직한 골목에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하고 저녁이 될수록 인파들이 넘쳐난다.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자한 웃음 속에서 삶의 희열이 넘친다. 스페인 사람들의 밝고 명랑한 심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가 보다.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말라가 시내를 가늠해 보기 위해 시티투어버스(City tour bus)를 탔다. 투어버스에 앉아 있으면 도시가 간직한 명소를 차례로 방문한다.

말라가는 역사와 문화, 예술과 자연이 잘 섞여 있는 도시다. 로마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곳 위의 언덕에는 알카사바(Alcazaba)와 히브랄파로성(Castillo de Gibralfaro)이 있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베리아를 지배한 이슬람왕국 시절의 궁전이자 요새다. 알카사바를 지나 히브랄파로성에 오르면 도시와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언덕 아래에 시야를 막지 않는 키 낮은 건물들이 이어지고 도시와 해변을 경계로 삼는 가로공원이 해변과 같은 방향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다. 가로공원의 키 큰 나무 그늘을 벗어나면 해수욕



말라가 알카사바

장이 펼쳐진다.

투우 박물관

해변 상가가 시작되기 전 큰 길가에는 예전 투우장이 박물관으로 바뀌어 옛 투우경기의 사진과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투우의 거친 모습을 담은 사진은 한 시대가 흘러갔음을 보여준다. 전성기 투우의 역사를 기록한 투우사들의 멋지고 용맹스러운 사진에서 웬지 추억의 아련함이 느껴진다.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도시의 조건

말라가를 걷다가 유럽의 크고 작은 도시를 걸으며 느꼈던 의문이 떠오른다. 저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감탄과 물음이다. 걷기에 좋은, 걷고 싶은, 걸어서 느끼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은 거리를 걷노라면 커다란 선물을 받은 듯한 황홀함과 벽찬 가슴의 흥분을 느낀다.

어떤 요소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걸까? 건축가 유현준의 통찰을 빌리자면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느끼는 도시의 요소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의 감성은 산토리니 같은 마을을 아름답게 인식한다. 건물의 소재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형태는 건물마다 제각기 달라 변화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통일감이 있을 때 아름답다고 느낀다. 파리, 암스텔담, 브뤼셀... 유럽의 도시가 아름다운 것은 건축재료는 같지만 건축물이 비슷한 듯 통일감이 있고 건물마다 색다른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깨를 붙이고 서 있는 똑 같이 생긴 듯한 건물 같지만, 장인이 정교하게 만든 다양한 인물이나 정물 조각품이 얹혀져 변화를 주고, 동일한 건축 소재가 건물 외부 장식(exterior ornament)의 변화와 어울려 단순한 느낌을 넘어 통일감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휴먼스케일의 크기로 만들어져야 인간은 편안함을 느끼며 걷게 된다.

인간의 보폭이나 눈높이 같은 신체적 조건에 최적화된 규모가 인간적 크기, 휴먼스케일이다. 살짝 눈을 들으면 건물의 지붕이 보이는 높이의 건물이 만들어내는 거리가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을 어울렁거리며 걷게 만든다.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도시들은 차가 발명되기



말라가의 대리석 보도

전에 형성된 거리다. 보행자와 느릿하게 움직이는 마차 중심의 거리다. 자연히 걷기 편한 규모로 도시가 발전했다. 이런 도시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 명소,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는 레스토랑과 카페, 박물관, 극장, 기념품 파는 곳이 서로가 걸어서 닿는 곳에 붙어 있다. 차를 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 여기저기 세워진 신도시에 가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8차선~10차선의 대규모 도로로 구획되어 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도로 아니면 아파트밖에 없는 구조다.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도 차를 타고 나가야 하기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다. 걷기에 매우 불편한 신도시를 만든 원인이 휴먼스케일을 망각한 도시 설계 때문이다.

사람을 걷게 유인하려면 도로상의 이벤트 밀도가 높아야 한다. 이벤트는 거리를 걷는 동안 감

각을 자극하는 요소다. 예쁜 옷가게,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점, 그릇가게, 베이커리, 저리 조형물, 분수대 등.

100미터 거리 안에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가게가 있고 간간이 분수, 조각 등이 빈 공간을 채워 풍경이 바뀌는 변화를 주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 이런 이벤트 밀도가 100미터 거리에 30~40개 이상 되어야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들고 걸으며 즐긴다.

유럽 도시를 걸어보니 유현준교수가 분석하는 아름다운 거리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다.

저녁에는 말라가의 골목길에 위치한 레스토랑의 외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즐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양한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거리를 걷는다. 저 사람들도 동양인인 나를 쳐다보며 또 하나의 변화를 느낄 것이다. 앞의 레스토랑에 소풍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흥겹고 행복해 보인다. 사람이 즐기는 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시,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말라가, 피카소의 도시

말라가를 상징하는 두 가지는 태양과 피카소다.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지 말라가 공항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AeroPuerto de Malaga-Costa del Sol(AGP, 태양의 해변 공항) 또는 Pablo Luis Picasso Airport(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공항)로 불린다.

아침 10시에 말라가 피카소미술관(Museo Picasso Malaga)를 갔더니 벌써 줄이 20미터쯤 서 있다. 이곳에서 큐비즘의 대작 「아비뇰의 아가씨들」(1907년) 원작을 처음 보았다. 전통적 회화와 달리 인체를 해부하여 삼각형, 원뿔, 직선으로 표현한 것이 당시 쇼킹했다



「아비뇰의 아가씨들」 피카소

고 한다. 실험적인 아방가르드의 출현이다. 미술을 잘 알지 못하는 미맹(미술 문맹)이지만, 가로세로 2m가 넘는 대작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바르셀로나가 가우디의 도시라면, 말라가는 피카소의 도시다. 피카소는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16살에 미술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이주하였고, 20대부터는 거의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다. 이곳에서 태어난 인연으로 말라가는 피카소의 생가와 미술관으로 많은 순례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예술의 힘은 위대하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스페인 내전

스페인이 겪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해야 스페인이 보인다. 하나는 1492년에 끝난 리콩키스타(reconquista)이고 다른 하나는 20세기에 일어난 스페인 내전이다.

스페인 내전의 참혹함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것이 피카소의 대작 「게르니카」다.

프랑코 반란군을 지원한 독일이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을 비행기로 폭격한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의 참상을 보도한 신문을 보고 영감을 얻어 그린 작품이 「게르니카(Guernica)」이다.

피카소의 그림은 지금도 스페인 내전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이 주는 인명 피해의 상징성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좌파 인민전선 정부는 선이고 프랑코 반란군을 악으로 여기는 인식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의 승리가 서유럽 내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공을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스페인 내전은 1936년 인민전선 정부와 프랑코 반란군의 싸움이었다. 공화파 인민전선 정부의 ‘입법 독재’는 나라를 무법과 무질서의 혼돈에 빠트렸다. 왕당파 군 장성들은 ‘국가의 질서 회복, 재산권 보호, 기독교 문명 수호’를 기치로 내걸며 쿠데타를 일으켜 내전으로 번졌다. 반란은 다른 장군들이 시작했지만 명성이 높았던 사관학교 총장이었던 프랑코 장군이 반란군의 중심에 서게 되고, 3년간의 전투 끝에 프랑코는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당시에도 세계의 지식인들은 좌파 인민전선을 선(善)으로 보고 자원 입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무정부주의에 심취해 있던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도 그런 인물 중 하나로 스페인 인민전선에 자원 입대한다. 그 시절 세상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가 새로운 사조로 범람하며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했다. 그러나 정치체제로서 새로운 이념이 가져올 무섭고 암담한 결과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새로운 이념적 사조가 그리는 유토피아를 머릿속에 그리던 낭만적 낙관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도미노처럼 동부유럽을 휩쓸고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가져온 비인간성과 폭력성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깨닫기까지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헤밍웨이가 소설에서 던진 물음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죽어야 하는가?(For Whom the Bell Tolls?)



「게르니카」 피카소

리콩키스타의 종착지-그라나다, 그리고 스페인제국의 탄생

스페인인 인류 문명사에 끼친 영향은 위대하다.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리콩키스타(Reconquista)를 만난다. 리콩키스타는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이슬람 왕국에 저항하여 8세기부터 에스파냐인들이 벌인 국토 탈환 전쟁을 말한다. 774년간의 항전을 거쳐 1492년에 마침내 그라나다에 있던 이슬람 왕조의 세력 근거지인 알함브라 궁전을 함락시킴으로써, 이베리아반도에서 이슬람을 몰아내고 기독교 국가를 되찾는다.

이후 리콩키스타 전투를 통해 얻은 '싸움의 기술'로 무장한 에스파냐왕국은 16세기에 신대륙을 개척하여 부를 쌓게 되고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의 패권국이 된다. 이후 1805년 트라팔가르에서 영국의 넬슨에 패전할 때까지 바다와 세계를 주름잡는다. 현재 브라질을 제외한 수억 명의 남미 인구가 스페인어를 쓰게 된 것이 스페인 제국의 유산이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슬람 양식의 정수를 한곳에 모은 것으로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을 보기 위해 그라나다를 찾는다. 이슬람 왕국 시기에 조성된 시가지가 잘 보존된 그라나다의 골목을 거니는 즐거움도 있지만 여행객들을 그라나다로 이끄는 힘은 알함브라 궁전에서 나온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알함브라 궁전의 모습은 이슬람 건축의 백미다. 요즘은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기가 어렵다.

이슬람 궁전의 입지는 서민들이 사는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자리한다. 알함브라 역시 그라나다가 발아래 펼쳐지는 언덕에 축성된 거대한 궁성이자 요새다. 알함브라 궁전을 걷다 보면 이슬람 궁전의 내밀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궁이 함락되던 날의 절망감과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알함브라는 현빈과 박신혜가 주연을 맡은 한국의



스페인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9년)에서도 소개 되어 잘 알려졌다. 본래 같은 이름의 기타 연주곡은 트레몰로 연주법에 실은 기타 선율의 깊은 애수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것으로 유명하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기타 연주가인 타레가(Francisco Tarrega, 1853~1909)가 작곡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듣고 있노라면 애절한 곡조에 실린 몰락한 왕조의 처연함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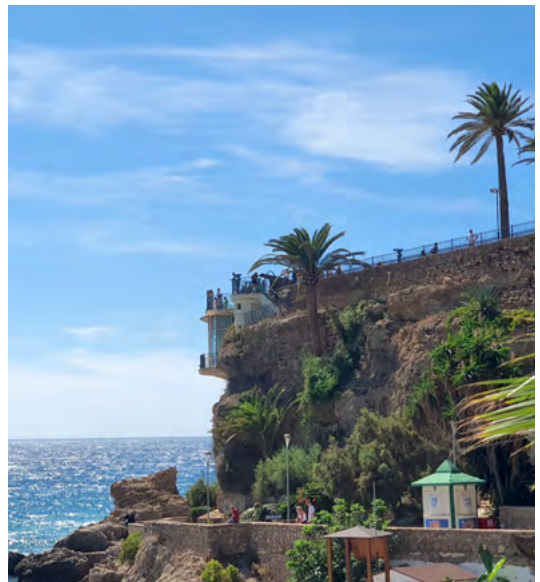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날씨 좋음
유럽의 발코니, 네르하

오늘은 분위기를 바꾸어 해변이 아름답다고 하는 네르하(Nerja)에 가기로 했다. 네르하는 해변 절벽과 천혜의 백사장으로 소문난 곳이다. 스페인의 왕 알폰소 12세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지중해로 뻗어 나온 네르하의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발코니 같다고 하여

‘유럽의 발코니(Balcon de europa)’로 불린다. 지형을 보니 과연 그럴 만하다. 해변 마을 네르하는 해안 절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전면 중앙의 넓은 광장의 끝이 전망대다. 마을과 광장의 끝은 절벽이고 절벽 아래 지중해 바다가 일렁인다. 눈을 들어 멀리 내다보면 지중해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전망대 한쪽에 알폰소 12세의 등신대 동상이 서서 여행객을 반긴다.

절벽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해변으로 내려가면 거대한 바위 틈새로 작은 백사장이 나온다. 해수욕을 즐기는 가족, 연인들을 보니 서울의 가족이 생각난다. 햇볕이 아쉬운 다른 유럽 나라에서는 태양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아침 10시에 말라가를 출발하여 네르하와 인근의 중세 언덕 마을 로스콘데스(Los Condes)을 돌고 왔는데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니 오후 5시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지 여행사가 판매하는 1일 투어 버스를 이용하여 네르하 여행을 다녀왔다. 혼자서 5개 국어(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로 다섯 차례 통역을 하는 투어 가이드가 인상적이었



네르하 전망대

다. 이용금액은 33유로.

유럽에서 마지막 밤을 혼숙한 사연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시 바르셀로나에 돌아왔다. 예약한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려니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단다. 분명 며칠 전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예약을 했는데... 부랴부랴 컴퓨터를 켜서 예약 내역을 확인해보니 아불사! 9월 28일을 10월 28일로 날짜 입력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호텔에 빈방이 없단다.

하는 수 없이 로비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당장 숙박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았다.

이리저리 숙소를 확인하던 중 카사 그라시아(Casa Gracia) 호텔에 34유로짜리 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텔의 위치가 좋다. 가격은 저렴하고 위치가 가우디의 명작 카사 밀라에서 가깝다. 숙소가 사라지기 전에 예약을 서둘렀다. 두 번 다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날짜를 두 번 세 번 확인해가며 시스템에 입력을 했다. 예약을 마치고 곧바로 바르셀로나 중심 지역에 있는 카사 그라시아 호텔로 갔다. 호텔의 건물 모습이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다. 로비에 들어서니 호텔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호텔의 프론트데스크가 함께 붙어 있다.

후론트 직원이 “올라(Hola)” 하며 반갑게 맞아 준다. 간단히 체크인하고 방에 올라가니 2층 침대 3개가 놓여 있다. 6명이 쓰는 방이다. 호텔이라 했지만 현실은 호스텔이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호스텔을 처음 이용해본다. 가격이 저렴하긴 했지만 6명은 좀 많은 것 같다. 아무튼 호텔 시설은 하룻밤을 묵기에 나쁘지 않다. 침구와 수건, 샤워실이 딸린 화장실이 순백으로 청결하다.

오후 2시쯤 체크인했는데 아직 방에 나 혼자다. 다른 투숙객이 없는 것을 보니 운 좋으면 2~3명만 묵을 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긴다.

외출 후 저녁식사를 하고 방에 들어섰다가 깜짝 놀

랐다. 20대의 여성이 방에 있다가 나를 보며 “올라(hola)” 인사하며 멋쩍게 웃는다. 자기 이름은 타티아 나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왔단다. 전쟁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왔는지 의문이 생겼지만 묻지는 않았다. 조금 있으니 역시 20대쯤으로 보이는, 미니스 커트에 한쪽 어깨를 드러낸 또 다른 여성이 들어오며 환하게 인사말을 던진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왔고 이름이 마논이란단다. 이들은 여행하며 이런 상황은 처음은 아닌 듯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놀라는 기색도 없다. 조금 있으니 설상가상인지 금상첨화인지 태국에서 온 여성 직장인 한 명이 더 들어왔다. 이제 나를 합해 넷이 되었는데, 마논이 두 명의 남자 룸메이트가 더 있더라고 한다.

그때서야 예약할 때 신경 쓰지 않았던 mixed room이란 설명문이 떠올랐다. 남녀가 한방에서 묵는 것이다.

밤늦게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한국인을 만났다고 반가워하며 내 앞자리 침대에 걸터앉아 말을 걸었다. 민항기 파일럿인 아들 덕에 이스탄불에서 여행을 왔단다. 늦게 마지막 청년이 들어오더니 그냥 쓰러져 잔다.

결국 2~3명이 쓸 것으로 기대했던 희망은 사라지고 여자 셋, 남자 셋의 기묘한 조합으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날 밤 이스탄불 노신사가 울린 코골이로 모두가 잠을 설친 것 말고는 아무 일(?) 없이 혼숙한 하룻밤이었다.



이규형 경영학박사
조직경영연구소 대표
기업조직경영 자문
융합경영학회 감사

맞춤형 혁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을 돕는 튼튼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onsulting

비즈니스 솔루션 도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상생협력 파트너십



Solution

R&D를 통해 도출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Education

비즈니스 모델 실현을 위한 서비스 및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MatchBox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원천 데이터를
> 실시간 시각화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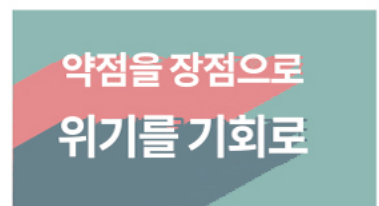
Green Nest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정보 분산처리 솔루션



스타트레일 매거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진



“조직의 미래 비즈니스 성품이 좌우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성품은
모든 진정한 리더십의 기초이다.”

-John C. Maxwell -

“훌륭한 조직에는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문화가 있다.”

-Ray Dalio, 브릿지워터 CEO-

“우리는 지성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지성에 성품을 더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 Dr, Martin Luther King-

☎ ESG성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문의: 02-2242-2012



“한국성품경영협회는 성품경영과 관련되는 융·복합 연구와 활동, 학술지 발간 및 인증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회 속 다양한 조직에서 친환경, 사회가치 실현, 투명한 지배구조의 ESG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